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



Uiju Mountain Film Pre-festival  
2015. 8. 28. Fri - 9. 1. Tue

주최 울주군  
주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후원 울주군의회, 울산광역시



# BANDI/LUNI'S

## 반디앤루니스

### 서점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반디앤루니스

1988년에 설립한 반디앤루니스는 센트럴시티점을 비롯한 13개 전국 규모의 지점망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기업입니다.  
28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점에서 문화를 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디앤루니스는 책을 비롯한 문화상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독자의 일상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동반자로서 서점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영업점 안내

|        |               |            |               |
|--------|---------------|------------|---------------|
| 센트럴시티점 | 02) 530-0700  | 롯데울산점      | 052)257-5110  |
| 중로타워점  | 02) 2198-3000 | 롯데월드몰점     | 02) 411-1500  |
| 코엑스점   | 02) 556-6002  | 롯데몰수원점     | 031) 280-1700 |
| 사당역점   | 02) 3487-4747 | 롯데스타시티점    | 02) 2218-3050 |
| 신림역점   | 02) 888-1330  | 롯데아울렛파주점   | 031) 960-2800 |
| 목동점    | 02) 2163-2251 | 현대일산점      | 031) 822-3870 |
| 서강점    | 02) 703-6640  | 반디앤루니스 온라인 | 1577-4030     |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를 'K-water'로 불러주세요.

## 건강한 수돗물이 전하는 우리집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한 엄마와 아빠까지-  
온 가족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K-water가 만드는 건강한 수돗물입니다

### 반디앤루니스 옴니채널 서비스

## 복셀프 3.0

온라인 주문하고 매장에서 바로 찾는 복셀프부터  
번거로웠던 반품/교환까지 이제, 가까운 매장에서 해결하세요.



모바일 웹  
minibandi.com



모바일 App  
다운로드

반디앤루니스 모바일로 복셀프를 이용해 보세요.

## 건강한 수돗물 K-water

###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미네랄이  
균형있게 포함된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250여가지의 수질검사

250여 가지 항목의 꼼꼼한  
수질검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Total Care Service

방문 수질검사 및 옥내배관 내시경 조사 등  
을 통해 소비자가 수도꼭지수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ECIALTY COFFEE FESTIVAL

# COFFEE SENSATION 2015

‘커피, 디자인을 말하다’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의 향연!

11.06(금)~08(일)  
부산 BEXCO신관

## SCAK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Korea

(사)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  
[www.scak.net](http://www.scak.net)

Coffee bar

bitter  
&  
sweet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7번길 61 (지족동 885-10) ☎ 070-8794-1289  
[www.bitternsweet.coffee](http://www.bitternsweet.coffee)

레이나 더치커피  
스노우드롭



100%  
Real Dutch coffee  
Snowdrop



트윈스 세트 450ml \* 2ea



트윈스 세트 1000ml \* 2ea

레이나커피

더치커피 / OEM  
생두 & 원두문의

TEL. 070-4142-0059 FAX. 02-503-9009  
427-070 경기도 과천시 삼부골2로 20(주)씨큐브

[www.leinacoffee.com](http://www.leinacoffee.com) [www.coffeekong.com](http://www.coffeekong.com)

자.연.속.녹.색.심.터



SEVEN MOUNTAIN

RESORT

WELCOME TO SM RESORT

SM리조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41-1번지

TEL. 052-254-0800

www.smresort.co.kr

우리는 매일 그저 그런 일을 하며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화의 보다 안으로 다가갈 수 있고

관련된 기술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전념하고 있죠.

우리가 아니면 안되는, 더팩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그것은 하나의 신념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더 뛰어날 것입니다.

We just don't waste our time doing meaningless jobs.

We're fully dedicated to helping everyone easily understand the very nature of the movies and providing them with related skills in a more convenient way.

The Things only we, THEPEC, can do.

These are beliefs and confidence at the same time that we can be people's hopeful future.

And our tomorrow will be magnificent.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과 더팩이 함께합니다.

더팩

대표이사 겸민화 상호 주식회사 더팩 본사 서울특별시 상동구 성수일로 20, 3층 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암문로 41, 1608호  
전화번호 02-461-7717 팩스 02-468-7717 홈페이지 <http://www.thepec.c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thepecdcs>

창간26주년

# 月刊 사랑과 산

alpinism & humanism

주최



주관



후원



협찬



[www.mountainkorea.com](http://www.mountainkorea.com)  
[www.facebook.com/mountainkorea](http://www.facebook.com/mountainkorea)

## 목차 Contents

|    |               |                                |
|----|---------------|--------------------------------|
| 9  | 축사 및 인사말      | Greetings & Message            |
| 12 | 공식 포스터        | Official Poster                |
| 13 | 공식 트레일러       | Official Trailer               |
| 14 | 홍보대사 오피니스트    | UMFFinist                      |
| 15 | 조직 & 스태프      | Organization & Staff           |
| 16 | 행사 공간         | Festival Space                 |
| 18 | 셔틀 버스 시간표     | Shuttle Bus Schedule           |
| 20 | 교통 정보 안내      | Traffic Information            |
| 21 | 상영 일정표        | Screening Schedule             |
| 24 | 울주서밋 & 심사위원   | Ulju Summit & Juries           |
| 26 | 개막작           | Opening Film                   |
| 27 | 산+끓림          | M+Passion                      |
| 35 | 산+끓림 밴프 나잇    | M+Passion                      |
| 40 | 산+누림          | M+Pleasure                     |
| 44 | 산+누림 한국애니메이션  | M+Pleasure                     |
| 47 | 산+올림          | M+Panorama                     |
| 53 | 네팔특별전: 네팔의 희망 | Special Program: Hope of Nepal |
| 56 | 2015 울주서밋     | 2015 Ulju Summit               |
| 59 | 부대 행사         | Festival Event                 |
| 69 | 자원활동가 움트리     | Volunteer                      |
| 70 | 도움 주신 분들      | Acknowledgements               |
| 71 | 작품 색인         | Index of Films                 |

## 인사말 Message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조직위원장  
신장열

Chairman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in Jang Yul

여름의 끝자락, 영남알프스 푸른 물결이 이제 가을의 멋스러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때에 낭만과 감동으로 하나 될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열게 돼서 정말 가슴 설레고 기쁩니다.

산과 자연,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축제를 찾아주신 내빈과 국내외 관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제 준비에 열정을 쏟아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영남알프스는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알프스'라는 산악지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악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내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나아가 이 영화제를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3대 산악영화제의 하나로 성장시켜가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참여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년 제1회 영화제에서 그 마음을 모아 다시 꼭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t the end of the summer days, the green waves of Yeongnam Alps are preparing for its gorgeous autumn. In this beautiful season, I feel thrilled and I am glad to host the 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 full of romance and inspiration.

I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audiences and the guests coming to our festival with all your affection for mountains, nature and films. I als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parties of dedicated, hard-working people who make the Festival happen.

I would like to take pride in Korea's treasure, the Yeongnam Alps named after the Alps in Europe. This name only exists in five part of the world. With a vision of becoming a global city of touring and mountain culture around the Yeongnam Alps, Ulju-gun will hold the fir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n 2016. Furthermore, we have our goal to develop the festival to one of the Asian's best, and one of the three biggest mountain film festivals in the world.

Most of all, your affection and your participation will be the most powerful energy for us to make our vision happen.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next year.

Thank you very much.

## 인사말 Message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장  
박재동

Director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PARK Jae-dong**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국내 유일의 산악전문 국제영화제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한마디로, '산자락에서 펼쳐지는 별도 세고, 영화도 보고, 산도 즐기는 시네마 캠핑!'이며, '영화'를 매개로 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2016년 제1회 영화제 개최에 앞서 닷새간 신불산 중턱과 울주군 일원에서 열리는 프레페스티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제작된 산악, 자연, 환경, 모험, 여행에 대한 다양한 영화들이 산+캠핑, 산+누림, 산+울림 섹션과 네팔특별전을 통해서 소개될 것이며, 2015 울주서밋 지원작 3편을 월드 프리미어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를 찾은 여러분이 영남알프스의 고장 울주의 산과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캠핑, 영남알프스 트레킹, 산악 사진전, 도서전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페스티벌을 위해 애쓰신 영화제 사무국 스태프들과 자원활동가 '움트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울주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reaching the autumn now.

It is nice to meet you all visiting Ulju Mountain Film Festival.

Our festival is Korea's the only specialized film festival for mountains. In a wo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The Cinema Camping Trip' at the foot of a mountain where you can enjoy the stars, films, and mountain, where the people and nature in harmony by the medium of cinema. This year's festival will be opened for five days at the hillside of Shinbulsan Mountain, Ulju,-gun, as a form of the Pre-festival prior to the 1st festival in year 2016. The various films about mountains, nature, environment, adventures and journeys will be introduced in the section of M+Passion, M+Pleasure, M+Panorama and Special Program: Hope of Nepal. You can also meet the three world premier films supported by 2015 Ulju Summit. In addition, we also have prepared for camping sites, tracking courses at Yeongnam Alps, and the photo exhibition, the book fair and various events as well, so as for the festival audiences to fully enjoy nature and mountains in the town of Yeongnam Alps in Ulju.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festival's staffs and volunteers, UMTree who made their best endeavors for this Pre-festival.

Anyone who loves mountain is welcomed.

Anyone who loves cinema is welcomed.

Ulju is always waiting for you.

## 축사 Greetings



울산시장  
김기현

Mayor of Ulsan Metropolitan City  
**KIM Gi-hyeon**

반갑습니다.

어느새 계절의 길목입니다.

열정이 성숙으로 이어지는 때에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의 막이 올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울주군, 그리고 영화와 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함 포템킨>의 에이젠슈타인 감독은 "영화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국제적인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화는 만국공용어입니다. 영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감동과 기억은 나라와 지역, 인종을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자연에서 얻는 위안, 감동과 설렘도 공통분모입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영화와 자연을 결합한 열린 공감의 장입니다. 감동을 공유하는 벽 없는 영화관입니다. 2012년부터 준비해 내년에 개막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그래서 산과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울산의 선물이며, 올해의 프레페스티벌은 영남알프스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초대장입니다.

영남알프스의 매력과 영화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을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프레페스티벌과 2016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It is great to meet you all.

It comes to the changing season before we know it.

I am very glad and thankful that 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 2015 opens at this moment when passion leads to maturity.

I deeply congratulate on the opening of Pre-festival.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governor Shin and Ulju-gun, and all those who love films and mountains.

The film director Sergei M. Eisenstein known for the *Battleship Potemkin* once said, "The film is the most international art among all the art forms."

And he said that it was 'inevitable.'

Likewise, the film is the lingua franca. It is because anticipation and hope, touching moments and memories from a film are the universal values beyond countries, regions or races.

Nature is the same. Universal and common is the emotion when we face nature, when we get comforted from nature, and when we get touched and thrilled by natur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the open field of empathy combining films with nature. It is a cinema without a wall so as to share touching moments. Officially opening next yea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ll become the gift from Ulsan to all those who love mountains and films. This film festival has been prepared since 2012. This year's Pre-festival, indeed, is the autumn invitation for you from the Yeongnam Alps.

I hope your autumn will be rich with the charm of the Yeongnam Alps and the thrills from the festival films.

I again thank you all that have prepared and are preparing for the Pre-festival an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6.

Thank you very much.

## 공식 포스터 Official Poster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의 공식 포스터 '울주의 낮과 밤' 시리즈 2종은 영남알프스로 대표되는 울주의 지역적 특색과 산악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 행사의 특성을 드러내는 이미지텔링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낮'버전의 포스터는 트레킹, 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악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울주의 자연환경을 받고 활기찬 느낌의 채색으로 표현했으며, '밤'버전은 야의 영화상영과 캠핑, 반구대 암각화 등의 문화환경을 은은한 달빛과 그림자를 살려 신비롭게 오롯이 담았다. '산악문화' 전반에 걸친 테마에 초점을 두는 영화제의 성격과 트레킹 등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될 체험 프로그램을 시각화하여 일반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특히 우리 산이 주는 신령스럽지만 친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산을 의인화해 표현했다. 낮과 밤 버전 2종을 함께 나란히 펼쳤을 때 마치 우리 나라의 전통 그림인 '일월오봉도' 처럼 하나의 완성형 그림이 되어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최근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FI를 제작한 스튜디오 fnt의 총괄 아트디렉팅으로 완성됐다.

The official poster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ncludes the two types of illustrations entitled 'Day and Night of Ulju.' Focusing on image-telling.

This poster was produced so as to express a feature of this mountain-themed film festival along with Ulju's local particularity representing the Yeongnam Alps.

The 'Day' poster joyfully and actively describes nature of Ulju and people who are enjoying mountain sports including tracking, climbing and paragliding. The 'Night' poster thoroughly and magically captures the cultural environment in Ulju such as the outdoor cinema, the camping site and Bangudae Petroglyph Rock in the soft moonlight and shadow. To visualize both the feature of this mountain culture-themed film festival and the trial programs including tracking during the festival, we planned the poster to become friendly to the general public.

The official poster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personifies the mountain so that we can feel an image of the numinous but the intimate from Korean mountains. When we place the two types of the day and the night posters side by side, the whole picture, strangely inspiring, becomes one completed picture like the Korean traditional picture named 'Painting of the Sun, the Moon, and the Five Peaks (Il-wol-o-bong-do)'. The illustration was completed by an illustrator YUN Ye-ji and the executive art-directing by Studio fnt, the studio that created the Festival Identity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 트레일러 Official Trailer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의 공식 트레일러는 산악인이자 <벽>, <문순> 등을 연출한 산악영화 전문가감독인 임일진 감독이 촬영과 연출을 맡았다. 영남알프스의 고장 울주에서 한국 최초로 열리는 국제산악영화제의 시작됨을 알림과 동시에 '산악스포츠의 열정적인 매력에 끌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교감을 누리고, 비로소 사람과 산이 주는 감동을 널리 울리게 한다'는 콘셉트로 제작했다. 울주의 자랑인 영남알프스부터 히말라야 원정대의 모습까지 담아 스펙터클한 영상미가 백미이다. 특히 작곡가 양방언이 만든 영화제 공식 주제곡 '울주 오디세이'가 어우러져 영화제는 물론 울주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The official trailer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as directed and cinematographed by LIM Il-jin, a mountaineer and special film director for mountain films. He has directed *The Wall*, *Monsoon* and others. This trailer announces the opening of the Korea's first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n Ulju, the hometown of the Yeongnam Alp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the concept of 'the passionate attraction of mountain sports, the communion of nature, and the resonance from the impression of humans and mountains.' It contains the best spectacle beauty of the landscape from Ulju's pride the Yeongnam Alps to the Himalayas expedition. Particularly, the official music *Ulju Odyssey* composed by YANG Bang-eon is added to the trailer, which raises people's curiosities and expectations towards Ulju as well a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 홍보대사 움피니스트 UMFFinist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홍보대사 명칭인 '움피니스트'(UMFFinist)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영문 이니셜(UMFF)과 산에 대한 전통을 지키는 산악인들의 명예로운 호칭인 알피니스트(Alpinist)의 합성어다.

움피니스트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영화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함께 즐기는 역할을 한다. 매년 전문산악인 1인과 영화인 1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의 움피니스트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등반기인 엄홍길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배우 이다희가 선정되었다. 엄홍길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명실상부 세계적인 등반기로, '엄홍길휴먼재단'의 상임이사직을 맡아 학교를 짓는 등 히말라야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휴먼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배우 이다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산악영화 제작지원프로젝트 '울주서밋'의 2015년 선정작인 <오월>의 주연을 맡고 있기도 해 올해 프레페스티벌을 찾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만남과 공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The name of our honorary ambassador, UMFFinist is a compound word extracted from UMFF, the English initials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Alpinist, the honorable name for mountaineers keeping mountain traditions. UMFFinists will play a role to give wider publicity to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o communicate with visitors during the festival and to enjoy the festival together with them. We plan to select a professional mountaineer and a film insider every year.

This year, our UMFFinists of 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 2015 are UM Hong-gil, the world famous mountaineer beyond Korea, and LEE Da-hee, the on-coming rising actress with her performances in various works. UM Hong-gil is truly the world-class mountaineer; the first man to climb the world's 16 highest peaks in the Himalaya. He is the General Director of the UM Hong-gil Human Foundation, and works on 'Human Projects' including the school building project for children in the Himalaya. LEE Da-hee plays the main role in *Begin Again*, the select of 2015 Ulju Summit, the supporting program for mountain films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is will be her special encounter with the audiences of UMFF.

## 조직 및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 조직위원회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 조직위원장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신장열 SHIN Jang Yul

### 추진위원회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 추진위원장 Festival Director

박재동 PARK Jae-dong

#### 추진위원 Committee Members

강종진 KANG Dong-jin  
강종진 KANG Jong-jean  
권영란 KWON Young-ran  
권영호 KWON Young-ho  
김세원 KIM Se-won  
김수연 KIM Su-yeun  
김은영 KIM Eun-young  
김진성 KIM Jin-seong  
백학기 PAIK Hak-ki  
신영철 SHIN Young-chul  
이상호 LEE Sang-ho  
이춘근 LEE Choon-keun  
임덕용 Stefano IM  
장용재 JANG Yong-jae  
채윤희 CHAI Yoon-hee  
허철 HEU Chul

###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오만석 OH Man-seok

#### 프로그램머 Programmer

최선희 Billy CHOI

#### 프로그램팀 Program Coordinators

손은미 Amy SON  
유정화 RYOO Jeong-hwa  
신지현 SHIN Ji-hyun  
지정미 Ji Jung-mi  
이은비 LEE Eun-bi

#### 사업팀장 Operation Team Manager

하주 HA Ju

#### 사업팀 Operation Team

임윤성 UM Yoon-sung  
박은선 Eloise PARK  
우정혜 WOO Jung-hye

#### 홍보팀장 Publicity Team Manager

조계영 CHO Kye-young

#### 홍보팀 Publicity Team

조우리 JO Woo-ri  
이서하 LEE Seo-ha

#### 행정지원 Administration

이수영 LEE Su-young

#### 울주군 행정지원 Administration Support

문화관광과장 박상조 PARK Sang-jo  
문화관광과 영남알프스 이동학 LEE Dong-hak

#### 기술팀장 Technical Manager

나일선 NA Il-sun

#### 기술팀 Technical Team

이지혜 LEE Ji-hye  
이동렬 LEE Dong-ryeol

#### 스크리닝 매니저 Screening Manager

오영주 OH Young-ju  
김동민 KIM Dong-min  
성연중 SEONG Yeon-jung

#### 자막 Subtitles

김미라 KIM Mi-ra  
오혜선 OH Hye-sun  
김진숙 KIM Jin-sook  
윤보라 YUN Bo-ra

#### 번역가 Subtitles Translation

김혜진 KIM Hye-jin  
김연진 KIM Young-jin  
이성희 LEE Sung-hee  
이보경 LEE Bo-kyoung  
함혜숙 HAM Hye-suk  
박효선 PARK Hyo-seon  
박서진 PARK Seo-jin  
이시라 LEE Sy-ra  
달시 파켓 Darcy PAQUET  
조은정 CHO E J  
임지윤 Jiyoon LIM  
김수현 Sue KIM

#### 프로그램노트 Program Note

김형석 KIM Hyoung Seok  
최선희 Billy CHOI

#### 모더레이터 Moderator

심산 SIM San  
수잔 샤키야 Sujan SHAKYA

#### 포스터 디자인 Main Design

Studio fnt

#### 북디자인 Book Design

Studio fnt

#### 트레일러 Trailer

임일진 RIM Il-jin

#### 리더필름 Leader Film

장권호 JANG Gun-ho

#### 뮤직비디오&광고스팟 MV&TV Spot

최진재 CHOI Jin-jae

#### 영상&하이라이트 Festival Video Making

이인엽 LEE In-yeob

#### 스틸기록 Festival Photo Documentation

이성일 LEE Seong-il  
송인혁 SONG In-hyuk  
이동진 LEE Dong-jin

# 행사공간 Festival Space



## A 전시존 Exhibition Zone

- 도서전 UMFF 책마루  
UMFF Book Fair
- 영남알프스 스토리 사진전  
Photography Exhibition  
'Yeongnam Alps Story'

## B 체험존 Experience Zone

- UMFF 공작소 UMFF Fun Factory

## C 푸드존 Food Zone

- 푸드코트&푸드트럭  
Food Court&Food Trucks

## UMFF시네마 UMFF Cinema

- UMFF 끝자락 Ultimate UMFF Fun

## 산악문화센터 Mountain Arts Center

-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 국제클라이밍센터 Global Climbing Center

- 스포츠 클라이밍 Sports Climbing

## 복합웰컴센터 일원 Complex Welcome Center

- 트리 클라이밍 (거북바위)  
Tree Climbing
- 별사진 촬영 (간월재)  
Yeongnam Alps Photo-Workshop  
'Shooting the stars'
- 힐링트레킹 (간월재)  
Healing Trekking

# 셔틀 버스 시간표

## Shuttle Bus Schedule

- ° 영화제 개막 당일 및 행사일 각 장소의 버스 출발시간입니다.
- ° 영화제 상영관은 복합웰컴센터,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청소년수련관입니다.
- ° 안양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양파출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터미널에서 도보 3분)
- ° 배차간격 및 소요시간은 교통상황, 관객 대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 전체 코스 운행시간은 약 70분가량입니다. 영화 상영 및 행사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This is the bus schedule of each bus-stop.
- ° The cinema venue includes Complex Welcome Center, Ulju Arts Center and Ulju Youth Center.
- ° Please get on the bus at Eonyang Police Substation when you are at Eonyang Bus Terminal. (3 minute walk from Eonyang Bus Terminal)
- ° Please understand that the bus interval and the time depend on the traffic situations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 ° The time for running the entire bus route is about 70 minutes.
- ° Please see the screening schedule and the event time table.

8월 28일 (금) 8. 28. (Fri)  
개막일 / 상행노선 Opening Day / Ascending Route

| 출발 Departure            |                      | 도착 Arrival              |                                  |
|-------------------------|----------------------|-------------------------|----------------------------------|
| 울산시청<br>Ulsan City Hall | KTX 울산역<br>KTX Ulsan | 안양파출소<br>Eonyang Police | 복합웰컴센터<br>Complex Welcome Center |
| 09:00 →                 | 09:40 →              | 09:50 →                 | 10:10                            |
| 12:00 →                 | 12:40 →              | 12:50 →                 | 13:10                            |
| 15:00 →                 | 15:40 →              | 15:50 →                 | 16:10                            |
|                         | 17:10 →              | 17:20 →                 | 17:40                            |
| 17:00 →                 | 17:40 →              | 17:50 →                 | 18:10                            |
|                         | 18:10 →              | 18:20 →                 | 18:40                            |
| 18:00 →                 | 18:40 →              | 18:50 →                 | 19:10                            |
|                         | 19:10 →              | 19:20 →                 | 19:40                            |

8월 28일 (금) 8. 28. (Fri)  
개막일 / 하행노선 Opening Day / Descending Route

| 출발 Departure                     | 도착 Arrival              |                      |                         |
|----------------------------------|-------------------------|----------------------|-------------------------|
| 복합웰컴센터<br>Complex Welcome Center | 안양파출소<br>Eonyang Police | KTX 울산역<br>KTX Ulsan | 울산시청<br>Ulsan City Hall |
| 12:00 →                          | 12:20 →                 | 12:30 →              | 13:10                   |
| 15:00 →                          | 15:20 →                 | 15:30 →              | 16:10                   |
| 18:10 →                          | 18:30 →                 | 18:40 →              | 19:20                   |
| 20:00 →                          | 20:20 →                 | 20:30 →              | 21:10                   |
| 22:00 →                          | 22:20 →                 | 22:30 →              | 23:10                   |
| 22:15 →                          | 22:35 →                 | 22:45 →              | 23:25                   |
| 22:30 →                          | 22:50 →                 | 23:00 →              | 23:40                   |

8월 29일 (토) - 9월 1일 (화) 8. 29. (Sat) - 9. 1. (Tue)  
상행노선 Ascending Route

| 출발 Departure            |                              |                      |                         |                               |                                      | 도착 Arrival                       |
|-------------------------|------------------------------|----------------------|-------------------------|-------------------------------|--------------------------------------|----------------------------------|
| 울산시청<br>Ulsan City Hall | 울주문화예술회관<br>Ulju Arts Center | KTX 울산역<br>KTX Ulsan | 안양파출소<br>Eonyang Police | 울주청소년수련관<br>Ulju Youth Center | 작천정삼거리<br>Jakcheonjeong Intersection | 복합웰컴센터<br>Complex Welcome Center |
| 09:00 →                 | 09:25 →                      | 09:40 →              | 09:50 →                 | 09:55 →                       | 10:00 →                              | 10:10                            |
| 10:00 →                 | 10:25 →                      | 10:40 →              | 10:50 →                 | 10:55 →                       | 11:00 →                              | 11:10                            |
| 11:00 →                 | 11:25 →                      | 11:40 →              | 11:50 →                 | 11:55 →                       | 12:00 →                              | 12:10                            |
| 11:30 →                 | 11:55 →                      | 12:10 →              | 12:20 →                 | 12:25 →                       | 12:30 →                              | 12:40                            |
| 12:00 →                 | 12:25 →                      | 12:40 →              | 12:50 →                 | 12:55 →                       | 13:00 →                              | 13:10                            |
| 13:00 →                 | 13:25 →                      | 13:40 →              | 13:50 →                 | 13:55 →                       | 14:00 →                              | 14:10                            |
| 13:30 →                 | 13:55 →                      | 14:10 →              | 14:20 →                 | 14:25 →                       | 14:30 →                              | 14:40                            |
| 14:00 →                 | 14:25 →                      | 14:40 →              | 14:50 →                 | 14:55 →                       | 15:00 →                              | 15:10                            |
| 15:00 →                 | 15:25 →                      | 15:40 →              | 15:50 →                 | 15:55 →                       | 16:00 →                              | 16:10                            |
| 16:00 →                 | 16:25 →                      | 16:40 →              | 16:50 →                 | 16:55 →                       | 17:00 →                              | 17:10                            |
| 16:30 →                 | 16:55 →                      | 17:10 →              | 17:20 →                 | 17:25 →                       | 17:30 →                              | 17:40                            |
| 17:00 →                 | 17:25 →                      | 17:40 →              | 17:50 →                 | 17:55 →                       | 18:00 →                              | 18:10                            |
| 17:30 →                 | 17:55 →                      | 18:10 →              | 18:20 →                 | 18:25 →                       | 18:30 →                              | 18:40                            |
| 18:00 →                 | 18:25 →                      | 18:40 →              | 18:50 →                 | 18:55 →                       | 19:00 →                              | 19:10                            |
| 18:30 →                 | 18:55 →                      | 19:10 →              | 19:20 →                 | 19:25 →                       | 19:30 →                              | 19:40                            |
| 19:00 →                 | 19:25 →                      | 19:40 →              | 19:50 →                 | 19:55 →                       | 20:00 →                              | 20:10                            |

8월 29일 (토) - 9월 1일 (화) 8. 29. (Sat) - 9. 1. (Tue)  
하행노선 Descending Route

| 출발 Departure                     | 도착 Arrival                           |                               |                         |                      |                              |                         |
|----------------------------------|--------------------------------------|-------------------------------|-------------------------|----------------------|------------------------------|-------------------------|
| 복합웰컴센터<br>Complex Welcome Center | 작천정삼거리<br>Jakcheonjeong Intersection | 울주청소년수련관<br>Ulju Youth Center | 안양파출소<br>Eonyang Police | KTX 울산역<br>KTX Ulsan | 울주문화예술회관<br>Ulju Arts Center | 울산시청<br>Ulsan City Hall |
| 09:30 →                          | 09:40 →                              | 09:45 →                       | 09:50 →                 | 10:00 →              | 10:15 →                      | 10:40                   |
| 10:00 →                          | 10:10 →                              | 10:15 →                       | 10:20 →                 | 10:30 →              | 10:45 →                      | 11:10                   |
| 11:30 →                          | 11:40 →                              | 11:45 →                       | 11:50 →                 | 12:00 →              | 12:15 →                      | 12:40                   |
| 12:00 →                          | 12:10 →                              | 12:15 →                       | 12:20 →                 | 12:30 →              | 12:45 →                      | 13:10                   |
| 12:30 →                          | 12:40 →                              | 12:45 →                       | 12:50 →                 | 13:00 →              | 13:15 →                      | 13:40                   |
| 13:00 →                          | 13:10 →                              | 13:15 →                       | 13:20 →                 | 13:30 →              | 13:45 →                      | 14:10                   |
| 14:00 →                          | 14:10 →                              | 14:15 →                       | 14:20 →                 | 14:30 →              | 14:45 →                      | 15:10                   |
| 14:30 →                          | 14:40 →                              | 14:45 →                       | 14:50 →                 | 15:00 →              | 15:15 →                      | 15:40                   |
| 15:00 →                          | 15:10 →                              | 15:15 →                       | 15:20 →                 | 15:30 →              | 15:45 →                      | 16:10                   |
| 15:30 →                          | 15:40 →                              | 15:45 →                       | 15:50 →                 | 16:00 →              | 16:15 →                      | 16:40                   |
| 16:30 →                          | 16:40 →                              | 16:45 →                       | 16:50 →                 | 17:00 →              | 17:15 →                      | 17:40                   |
| 18:00 →                          | 18:10 →                              | 18:15 →                       | 18:20 →                 | 18:30 →              | 18:45 →                      | 19:10                   |
| 19:30 →                          | 19:40 →                              | 19:45 →                       | 19:50 →                 | 20:00 →              | 20:15 →                      | 20:40                   |
| 21:00 →                          | 21:10 →                              | 21:15 →                       | 21:20 →                 | 21:30 →              | 21:45 →                      | 22:10                   |
| 22:00 →                          | 22:10 →                              | 22:15 →                       | 22:20 →                 | 22:30 →              | 22:45 →                      | 23:10                   |
| 22:15 →                          | 22:25 →                              | 22:30 →                       | 22:35 →                 | 22:45 →              | 23:00 →                      | 23:25                   |

# 교통정보안내 Traffic Information



**복합웰컴센터(UMFF시네마&알프스시네마)**  
**UMFF Cinema&Alps Cinema, Complex Welcome Center**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극장 및 주차문의 052-248-6450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  
 극장 및 주차문의 052-229-95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345  
 극장 및 주차문의 052-229-9400

## 오시는 길 Directions

**승용차** 서울 경부고속도로 → 울산 (5시간 5분 소요)  
**버스** 서울 동서울터미널 → 언양버스터미널 (4시간 30분 소요)  
**KTX** 서울 서울역 → 울산역 (2시간 20분 소요)

#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 ° 등급 Ratings

- ㉠ 전체관람가 General
- ㉡ 12세이상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 15세이상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 18세이상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 자막 Subtitles

- E** 영어대사 English Dialogues
- NE**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Non-English Dialogues + English Subtitles
- N**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Non-English Dialogues + No English Subtitles
- KE**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Korean Dialogues + English Subtitles
- K**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Korean Dialogues + No English Subtitles
- ND** 대사없음 No Dialogues
- ENE** 영어대사 +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English & Non-English Dialogues + English Subtitles

모든 외국어 상영작에는 한글 자막이 지원됩니다.  
 All non-Korean dialogue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 산+골림 M+Passion
- 산+울림 M+Panorama
- 산+누리름 M+Pleasure
- 특별전 Special Program

## ° 상영관 정보 Theaters

UMFF시네마 - 복합웰컴센터 야외상영관 UMFF Cinema, Complex Welcome Center  
 알프스시네마 - 복합웰컴센터 내 작은영화관 Alps Cinema, Complex Welcome Center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 GV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게스트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 무료상영 & 선착순 입장

모든 영화는 무료 상영입니다. Admission is free for all screenings.  
 선착순으로 입장하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All seatings are on first-come first-serve basis.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Ratings must be strictly observed.

##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Any and all audio, video recording and/or photography is strictly prohibited at all screenings.

## °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나 SNS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Please check the website (www.umff.kr) and SNS for any change.

개막식  
Opening Ceremony

8.28 Fri 19:00  
UMFF시네마

개막작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  
Opening Film *Déjame Vivir*

62min  
**NE**  
㉠



## 울주서밋 & 심사위원 Ulju Summit & Juries

프레영화제 개최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울주서밋.

총 지원금이 4,000만원이었던 2015 울주서밋 보다 지원금을 대폭 늘려 3편 내외의 작품에 총 9,000만원을 지원하며, 본심 통과작을 대상으로 한 기획·개발 멘토링을 병행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산과 자연을 다룬 작품이면 장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지원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 2016 울주서밋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작품은 총 16편이다. 국영화 12편, 다큐멘터리 4편으로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역시 국영화가 강세를 보였다. 16편의 신청작은 예심과 본심 그리고 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워크숍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이 결정되며, 2016년 제 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관객과 만나게 될 것이다.

The Ulju Summit begins in earnest with the Pre-festival opening. This year, the total amount of the support fund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40 million KRW in 2015 Ulju Summit to 90 million KRW for approximately 3 films. Moreover, it adds the workshop program of development mentoring for the select. The Summit has the same application condition as any project dealing with mountains and nature can apply for it.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for the open call of 2016 Ulju Summit was 16. They include 12 feature films and 4 documentaries, so this year, as well, feature films remain stronger. The Summit will decide the amount of fund and supports through the preliminaries, the final review, and the workshop during the festival at the end. They will meet our audience at the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n 2016 for the first time.

### 2016 본심위원 Final Jury

김은영  
KIM Eun-young



추계예술대학교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삼성영상사업단 영화사업부에서 사업기획 및 영화 투자관리 담당하 바 있다. 단행본 『영화 비즈니스 입문』(2014)과 『영화 카피』(2015)의 저자이자, 영화 <거울속으로>(2003), <사랑니>(2005), <뜨거운 것이 좋아>(2007) 제작에 참여하였다.

Professor of College of Literature and Visual Communications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Worked at Samsung Entertainment Group for business planning and film investment. Her books include **Introduction to Film Business**(2014) and **Film Copies**(2015). She also produced films including *Into the Mirror* (2003), *Blossom Again* (2005) and *Hellcats* (2007).

김재민  
KIM Jae-min



2002년부터 영화배급 및 투자, 수입, 판권유통 등 콘텐츠 유통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NEW 자회사 콘텐츠판다를 설립하여 부가관련 유통 및 해외 세일즈, 외화구매, 독립영화 투자, 마케팅, 배급사업을 하고 있다.

He has been working at the field of content distribution including film distribution, investment, acquisition and copyright dealing since 2002. Established Contents Panda, an affiliated company of NEW in 2013, he is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sales, acquisition, investment to independent films, marketing and distribution.

양우석  
YANG Woo-seok



영화감독,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데뷔작 <변호인>은 탄탄한 구성의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로 기대를 모으며 천만 관객을 동원해 큰 화제를 낳았다. 2014년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작품상 및 제51회 대중상 신인 감독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하였다.

Film director. Graduated from Philosophy department at Korea University. He's debut work, *The Attorney* written and directed by himself made a sensation with its high quality screenplay, when it drew over 10 million audiences. He won the Best New Director and the Best Film at the Paeksang Arts Awards in 2014, the Best New Director and the Best Screenplay at the 51st Daejeong Awards.

### 2016 예심위원 Preliminary Jury

김영  
KIM Young



<장화, 홍련>의 공동제작자를 거쳐 한국영화아카데미 20주년 기념 작품인 <이공>프로젝트의 총괄 제작자를 역임하였다. CJ CGV 무비콜라주 (현 아트하우스)와 CJ CGV LA에서 팀장으로 일하였으며 현재 미루픽처스의 대표이사로서 영화를 기획 중이다.

She was one of the co-producers of *A Tale of Two Sisters* and the producer of *Yigong*, the film project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FA. She also worked as a team manager of CJ CGV Movie Collage (Arthouse) and CJ CGV LA. Currently, KIM is the CEO of Miru Pictures, and is working on film projects.

백학기  
PAIK Hak-ki



시인이자 영화배우 겸 감독. 엘오비(LOB)필름 대표이며 서울디지털대학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전주 영상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e is a poet, actor and director. He is the CEO of LOB Films and works as a visiting professor of Seoul Digital University. He also holds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member of Jeonju Film Commission.

이재식  
LEE Jae-sik



영화사 스폰지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마운틴 픽처스 대표로 활동 중이다. 영화 <청포도 사탕>, <코인라커>, <울지마 톤즈>, <노리개>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키사라기>, <악인>,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즈의 마법사> 등을 수입하였고 <창피해>, <사랑을 카피하다> 등의 영화를 배급하였다.

He worked as a board member of Sponge Ent. Inc., and has been working as the CEO of Mountain Pictures since 2008. He has produced *Grape Candy*, *The Coin Locker*, *Don't Cry for Me Sudan*, *Norigae*. He also imported *Kisaragi*, *Villain*, *Breakfast at Tiffany's*, *The Wizard of Oz* and distributed *Life is Peachy*, *Certified Copy* and others.

정재은  
JEONG Jae-eun



2001년 장편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로 데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개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온니버스 영화 <여섯개의 시선>중 <그 남자의 사정> (2003)과 영화 <태풍태양> (2005)을 감독했다.

고 정기용 선생의 삶과 건축을 다룬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 (2012)와 서울신청사 제작과정을 다룬 <말하는 건축 시티:홀> (2013)이 극장 개봉했다. She made her feature debut with *Take Care of My Cat* (2001). This film was released in the US, UK, Japan. She directed *The Man with an Affair* (2003) among the omnibus film, *If You Were Me* produc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Aggressives* (2005). she completed *Talking Architect* (2012), an architecture documentary about the late CHUNG Gi-yong's life and architecture. Her latest work, *Talking Architect, City: Hall* (2013).

최선희  
Billy CHOI



동국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영화진흥위원회,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 일했다. 2014년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준비단 기획팀을 시작으로 울주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Majored in Film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and worked at JIFF, SIWFF, Korean Film Council and Korean Barrier Free Film Committee. She became associated with UMFF when she began to work at the TFF, the preparation party of UMFF in 2014, and now works as a programmer of UMFF.

8.28 Fri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4: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 Déjame Vivir

Spain | 2014 | 6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Producer**  
Lymbus  
Montaz-Rosset Film

**Editor**  
Sébastien Montaz-Rosset  
Katie Moore

**Music/Sound**  
Zikali

**Cast**  
Kilian Jornet Burgada  
Mattheo Jacquemoud  
Emelie Forsberg  
Bruno Brunod

해발 2000미터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에서 달리기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스카이라닝. 스카이라닝 월드 챔피언인 스페인 출신의 킬리언 조넷은 4000미터가 넘는 몽블랑, 체르비노, 마테호른의 왕복 기록에 도전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설적인 스카이라너 브루노 브루노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단순한 세계기록 경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선배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자, 킬리언을 위해 함께 훈련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기꺼이 자처한 동료와 후배 선수들의 우정과 배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스카이라너들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다. 오랜 시간 킬리언과 호흡을 맞춰 온 세바스티앙 몽테즈-로제 감독의 신작으로, 운무를 가리며 산등성이를 달리는 킬리언은 산이 아닌 하늘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Skyrunning is an extreme sport of mountain running above 2,000 metres where the incline exceeds 30%. Kilian Jornet, skyrunning world champion from Spain challenges to break the record of the skyrunning in the mountains of higher than 4,000 metres; Mont Blanc, Il Cervino and The Matterhorn. This challenge means more than a record-breaking, as it's to follow the footsteps of the legendary skyrunner Bruno Brunod. The challenge also means a way to express his respect to Bruno Brunod, the great legend, his friendship and gratitude to other skyrunners who voluntarily trained together and became the pacemakers for Kilian, and respect and affection towards the nature as well. In this new film from Sébastien Montaz-Rosset who has collaborated with Killian for a long time, the skyrunning champion Kilian looks more like running across the sky through the clouds, not over the mountains.



**Dir. 세바스티앙 몽타즈-로제 Sébastien Montaz-Rosset**

알프스 산악 가이드와 스키 강사 경력을 통해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독특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형식적인 영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DSLR 카메라로 작업하는 신세대 영화감독 중 하나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영화를 배급한다.

Using skills and experience acquired from a life lived in the mountains, he tells stories from a unique perspective. Extraordinary tales of ordinary people recounted from the inside plunge the viewer into the midst of the action. He is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working with DSLR and distributing films via internet platforms.

## 산+골림 M+Passion

등반, 스키, 패러글라이딩, 바이킹, 카약 등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산악스포츠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

요세미티 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국 등반 역사를 발칙하게 다룬 2014 밴프산악영화제 대상 수상작 <반란의 계곡>, 새로운 동굴 발굴에 나선 뉴질랜드 동굴 탐험대의 모험 <케이브 커넥션>, 노장 등반가와 스키어의 삶과 자연에 대한 겸허한 철학이 그대로 전해지는 <루키>와 <88청춘>, 놀라운 속도로 녹아 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드러낸 <빙하를 따라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산악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M+Passion is the section that presents the movies about the traditional and professional mountain sports such as climbing, skiing, paragliding, biking and kayaking.

This year the section is packed with brilliant films in much wider spectrum; *Valley Uprising*, the Grand Prix film of 2014 Banff Mountain Film Festival, outrageous story set in the Yosemite National Park about the history of American climbing, *The Cave Connection - Into the Unknown* that portrays the adventure of the New Zealand cave explorers embarking on the discovery of a new cave, *Novato and Sculpted in Time: The Wise Man* in which we can learn from the humble philosophy about the life and the nature of a veteran climber and the skier respectively *Chasing Ice* that discloses the issue of global warming through fast melting icebergs in the Arctic.



8.29 Sat 14:00 **GY**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8.31 Mon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반란의 계곡 Valley Uprising**

USA | 2014 | 9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Producer**

Zachary Barr

**Cinematography**

Glen Denny

Tom Frost

George Meyers

**Editor**

Josh Lowell

Peter Mortimer

Nick Rosen

**Sound**

Brook Wentz

Vikram Gudi

**Cast**

Alex Honnold

Yvon Chouinard

Royal Robbins

Lynn Hill

Dean Potter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요세미티 산맥은 한 해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석인 엘카피탄과 3,000미터가 넘는 암벽이 즐비한 이곳은 동시에 미국 등반가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허가로 암벽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한가로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느긋한 휴가를 즐기려는 중산층 시민들과 경찰당국에겐 늘 눈엣가시였으며 아직도 그렇다. 50년대에 처음 이곳에 등지를 튼 최초의 등반가들은 소비주의에 매몰된 사회에 반항하는 비트 족이자 등반을 통해 대항문화공동체를 이뤄나간 반체제 주의자들이었으며, 이런 전통은 아직도 후배 등반가들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아카이브 영상을 발발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한 장면들은 시종일관 웃음을 자아낸다.

The peaks of Yosemite Valley in California is one of the most well known national parks in the US with more than 3 million visitors a year. Meanwhile, Yosemite is also the sacred place for the American rock climbers, as it is surrounded by high granite summits more than 3,000 meters, including El Capitan, the tallest granite face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those who climbed these rock faces without permission since 1950s and their climbing was and is the nuisance to the police and to the people wanting to enjoy the nature of Yosemite in peace as well. The first climbers who built their nest here in the 50s were the beat generation who rebelled against the consumerism socked society and built the community of opposition culture through the climbing and their spirit is inherited by the climbers of today.

**Dir. 피터 모티머, 닉 로슨 Peter Mortimer, Nick Rosen**

피터 모티머는 암벽등반 전문 비디오 프로덕션인 센터 필름스와 릴락 필름 투어의 대표 닉 로슨은 센터 필름스의 공동대표이자 작가, 프로듀서이다.

Peter Mortim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and REEL ROCK FILM TOUR. Nick Rosen is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Sender Films.



9.1 Tue 14: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빙하를 따라서 Chasing Ice**

USA | 2012 | 7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Producer**

Jerry Aronson

Paula Dupre Pesmen

**Cinematography**

Jeff Orlowski

**Editor**

Davis Coombe

**Music**

J. Ralph

**Cast**

James Balog

Svavar Jonatansson

Louie Psihoyos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 내리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거대한 지구 온난화 음모론의 일부라며 일축해 버린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제임스 발로그도 처음엔 기후변화에 큰 관심 없이 촬영을 위해 아이슬란드를 찾았다. 하지만 몇 개월 만의 북극 생활만으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한 발로그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수년에 걸친 익스트림 아이스 서베이(EIS)를 시작한다. EIS 팀의 저속 카메라 촬영을 통해 보여지는 북극의 해빙 속도와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The icebergs at the Arctic are melting fast due to the global warming. Some refuse to admit it saying it is part of a grand conspiracy theory. At first,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er James Balog went to the Arctic for the photo shoot without much interest in the climate change issues. But several months stay in the Arctic was more than enough for him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and he embarked on the Extreme Ice Survey(EIS) lasting for years to show people the proof. The speed and scale of snowmelt of the Arctic taken by the time-lapse photography exceeds our imagination.

**Dir. 제프 올로우스키 Jeff Orlowski**

감독이자 프로듀서, 촬영감독, 첫 장편 다큐멘터리 <빙하를 따라서>는 백악관, UN, 미국 의회 등에서 초청 상영된 바 있으며, 선댄스영화제 및 전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영화제 주제가상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Jeff Orlowski most recently served as director, producer, and cinematographer on the Sundance Award-Winning film, *Chasing Ice*. His feature length documentary was invited to screen at the White House,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ngress. It went on to receive an Academy Award nomination for Best Original Song.





8.30 Su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9.1 Tue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 케이브 커넥션 The Cave Connection - Into the Unknown

Austria, New Zealand | 2013 | 5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Producer**  
Johannes von  
Kirschbaum

**Cinematography**  
Scott Simper

**Editor**  
Robert Vakily

**Music**  
John Taylor

**Cast**  
Mick Hopkinson  
Kieran McKay  
Troy Watson  
Aaron Gillespie

'미지의 세계'란 단어는 늘 호기심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동시에 원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몸을 구겨 넣어야만 간신히 통과 가능한 좁은 통로와 어둡고 축축한 동굴을 사랑하는 동굴 탐험가들에게 뉴질랜드의 '네틀베드'와 '스토미 팻'이라는 두 동굴이 서로 이어져 있을 거란 가정은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두 동굴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80미터 연결구간이 사실로 밝혀지면, 남반구에서 가장 큰 동굴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 유혹의 강도는 더욱 세진다. 커다란 꿈을 품고 드디어 첫발을 디딘 동굴 탐험대. 이들의 무모한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The word 'Unknown World' always leads us to the curiosity but also to the nameless anxiety. For the spelunkers who are crazy about the narrowest passage where you should squeeze your body to pass and the dark and humid caves, the assumption that the two caves in New Zealand, the Nettlebed and the Stormy Pot might be connected is a temptation that you could never give up. The temptation gets only bigger as it would make you the first discoverer of the unknown connecting passage of 80 meters between the two caves. The cave expedition put the first step with the wildest dream in mind. Can their reckless challenge succeed?



### Dir. 니코 제이거 Niko Jäger

아웃도어 스포츠와 모험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으로서 전세계의 주요 산악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Niko Jäger focuses on the fascinating theme of outdoor sports and adventure. His work as director of adventure documentaries has won him awards in major mountain film festivals worldwide.

8.30 Sun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9.1 Tue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프로즌 타이탄 The Frozen Titans

Austria, Canada | 2014 | 5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Producer, Cinematography, Editor**  
Bryan Smith  
David Pearson

**Music**  
John Taylor

**Sound**  
Pabo Durana

**Cast**  
Will Gadd  
John Freeman  
Sarah Hueniken  
Katie Bono

올해 1월, 48세의 나이로 사상 최초로 55미터 높이의 나이아가라 폭포 빙벽 등반에 성공한 윌 개드는 세계 최고의 아이스 클라이머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겨울 캐나다의 가장 큰 폭포 중 하나인 141미터 높이의 헬름켄 폭포의 빙벽 등반을 시도했다. 도전 1년 전부터 컨디션 조절을 위해 꾸준히 몸을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 답사와 훈련을 병행해 온 윌 개드. 혹한의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드디어 시작된 빙벽 등반. 등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훌륭한 팀워크, 그리고 아찔한 등반 과정은 물론 헬름켄 폭포의 사계를 멋지게 담아낸 뛰어난 영상미가 인상적인 영화.

Will Gadd is considered as the best ice climber in the world. He became the first person to climb the frozen Niagara Falls' ice walls of 50m height in this January. And last winter he embarked on the climbing the ice walls of 141m height of Helmcken Falls, one of the biggest falls in Canada. Gadd has prepared the climbing for more than a year; building up his body, studying the location and training with his colleagues. The climbing finally begins amidst the severe cold and danger. The film captures the brilliant teamwork of Gadd's team at any moment, the breathtaking climbing moments as well as the beautiful four seasons' scenery of the Helmcken Falls.



### Dir. 브라이언 스미스, 데이비드 피어슨 Bryan Smith, David Pearson

브라이언 스미스는 극한의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제작 전문가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디즈니, 레드불과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일하고 있다. 데이비드 피어슨은 연출자이자 촬영감독으로 릴워터 프로덕션과 레드불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다.

Bryan Smith is an expert in filming in particularly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Dave Pearson is a director and director of photography. Together with Bryan Smith he is on the staff of Reel Water Production and works for Red Bull Media.

8.30 Sun 17:00 (G)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9.1 Tue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 루키 Novato

Spain | 2014 | 1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Asian &amp; Korean Premiere



'노바토'라고 알려진 프란시스코 마린은 61세의 등반기이자, 동년배 등반기 중에서 고난도 등반기 가능한 세계 유일의 등반기이기도 하다. 철저한 훈련과 엄격한 자기 수련을 멈추지 않는 마린은 자신의 최고 등반 기록을 60세를 넘긴 2012년에 달성한다. 삶과 등반 모두 늘 신인의 자세로 임하는 진정한 '노바토' 마린이 직접 전해주는 이야기가 깊은 여운을 남긴다.

Francisco Marin, also known as 'Novato', is a 61-year-old climber and the only known person in the world to climb at his age. He reached his maximum sporting achievement in 2012. He values effort, honor, perseverance and honesty in his life and his climbing. This film transcends the climbing world, inspiring and motivating all those who know his story.



Dir. 존 헤란츠 Jon Herranz

1980년 스페인 출생. 영화 <루키>는 빌바오, 트렌토 등의 국제산악영화제들에 초청되어 수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시경>이라는 사회 다큐멘터리가 있다.

Born in Spain in 1980. His short film *Novato* has been selected and received in several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s as Bilbao, Trento. He has also directed *Sikyong*.

8.30 Sun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9.1 Tue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빨강 버스 Little Red Bus

France | 2013 | 33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고산 베이스 점핑과 고공 줄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다른 전자 <I Believe I Can Fly>의 후속 편, 피에로 분장을 한 채, 한 손엔 카메라, 다른 한 손엔 약기를 들고 연주를 하며 동시에 베이스 점핑을 하는 빨강 버스의 탑승자들은 공중 곡예 서커스단을 연상시킨다. 히피처럼 함께 노래하고 생활하며 유럽을 순회무진 하는 빨강 버스 탑승자들의 흥겨운 곡예 여행을 따라가 보자.

Highliners, clowns, musicians, acrobats, climbers - there's space for everyone onboard the Little Red Bus. From Spain to Scotland, Brussels to Brévent, by air, land and sea... tumbling, flying, gliding and sliding, on a trip from the avant-garde to the extreme. There's never a dull moment on the Little Red Bus.



Dir. 세바스티앙 몽타즈-로제 Sébastien Montaz-Rosset

알프스 산악 가이드와 스키 강사 경력을 통해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독특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형식적인 영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DSLR 카메라로 작업하는 신세대 영화감독 중 하나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영화를 배급한다.

Using skills and experience acquired from a life lived in the mountains, he tells stories from a unique perspective. Extraordinary tales of ordinary people recounted from the inside plunge the viewer into the midst of the action. He is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working with DSLR and distributing films via internet platforms.

8.30 Su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9.1 Tue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 스톤 프리 Stone Free

UK | 2014 | 2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영국 최고의 프리 솔로(안전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하는 암벽 등반) 등반기인 줄리안 라인스.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 등반마다 심장이 멎어버릴 듯한 추락의 공포와 싸워가며, 아슬아슬한 고난도의 프리 솔로 등반을 펼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손마저 땀에 젖게 만든다.

Julian Lines is the best climber you've never heard of. He is undoubtedly Britain's most accomplished free climbing soloist with world-class free ascents to his name. This deeply personal account of the archetypal anti-hero is a stunning portrait that will leave your jaw on the floor.



Dir. 엘리스테어 리 Alastair Lee

영화감독이자 등반기이다. 산악 환경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은 뛰어난 촬영기술과 혁신적인 연출 작품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모험 영화의 촬영 분야에서 늘 선두에 서 온 연출자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야기와 스펙터클한 영상미가 일품이다.

He is a film maker and climber. His genuine passion for the mountain environment is best expressed through his innovative film work and superb cinematography. He has sort out the most spectacular settings and gripping stories.

8.29 Sat 14: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8.31 Mon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 정적 Sound of Silence

Germany | 2014 | 6min | DCP | Color | Fiction | ©

Korean Premiere



전문 스키어인 슈테판과 비욘은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에서 평소와 다른없이 훈련중이다. 먼저 활강한 슈테판에게 들려 온 커다란 굉음. 곧이어 그를 덮친 하얀 죽음, 눈사태와 칠흑 같은 정적. 과연 슈테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The two professional Ski-Freerider Stefan and Björn are spending a normal training day in the Austrian Alps. But when Stefan hears a loud bang during his ride he knows, that a fight against the white death, an avalanche, awaits him.



Dir. 아드리안 고이징거 Adrian Goiginger

1991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생. 첫 장편 영화인 <잊을 수 없는>은 잘츠부르크 및 오스트리아의 여러 극장에서 상영된 바 있다. 현재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영화학교에서 연출을 공부하고 있다.

Adrian Goiginger was born in Salzburg, Austria on 1991. First feature film *Unforgettable* gets screened in Salzburg and several Austrian cinemas. Now he studies directing in Germany.

9.1 Tue 14: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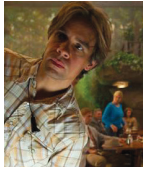
## 패러글라이딩 어드벤처 500 Miles to Nowhere

USA | 2014 | 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파일럿 그룹이 미국 와이오밍 주의 허리케인 리지에서 잭슨 홀까지 공중 캠핑을 시도한다.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극한의 비행 코스. 18,000 피트 상공에서 산에서 산으로 여행하는, 그야말로 궁극의 고산 등정이 펼쳐진다.

An elite group of paragliding pilots attempt an unsupported vol-biv from Hurricane Ridge to Jackson Hole, Wyoming; a line that has never been flown. It's the ultimate alpine adventure. A minimalist, "Alpine" approach to travel in the mountains at 18,000 feet.



Dir. 마이클 폴 존스 Michael Paul Jones

다수의 영화 촬영을 담당하였으며 감독 겸 촬영감독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Michael Paul Jones has worked on the cinematography of numerous films and is an active film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 부대 행사 Festival Event

|              |                                       |
|--------------|---------------------------------------|
| UMFF 체험 ①    |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 힐링 트레킹                   |
| UMFF 체험 ②    |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 'UMFF 공작소'           |
| UMFF 체험 ③    | 영남알프스 '별사진 촬영'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
| UMFF 전시      | 'UMFF 책마루' & 영남알프스 '스토리 사진전'          |
| UMFF 공연      | 'UMFF 끝자락' & 'UMFF 힐링 스테이지'           |
| UMFF 캠핑 & 푸드 | 백패킹 야영존, 카페테리아 'UMFF 산장' & '푸드 트럭'    |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14.C

USA | 2014 | 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카이 라이트너는 6살의 나이에 암벽등반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제 14살, 카이는 어려운 등반의 한계에 도전하며 집중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 모든 도전은 밑에서 든든히 로프를 잡아 주고 있는 싱글맘인 엄마가 함께하기에 가능하다.

Kai Lightner discovered rock climbing at the age of six. Now 14, he is pushing the limits of hard climbing and trying to staying focused, all with his single mom on belay.



Dir. 조지 놀스 George Knowles

프리랜서 감독이자 편집자, 그리고 역사학자이다. 그의 작품 <14.c>는 떠오르고 있는 10대 암벽등반 스타인 카이 라이트너와 그의 엄마 코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그리고 있다.

George Knowles is a freelance filmmaker, editor and historian. His short film 14.c feature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rising teen climbing star, Kai Lightner, and his mom, Connie.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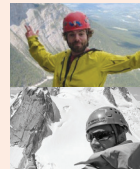
## 88청춘 Sculpted in Time: The Wise Man

Canada | 2014 | 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자신의 나이를 피아노 나이로 부르는 88세의 스키어, 에디 헌터. 그는 지난 79년 동안 무려 2,500일을 스키를 타며 지냈으며,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고향의 산에서 스키를 즐긴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눈, 스키, 산,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한 진솔하고도 깊은 성찰.

Eddie Hunter is 88 years old and has skied over 2,500 days during the past 79 years. Follow him as he continues to shred on the home town mountain he just can't seem to get enough of.



Dir. 데이브 모습, 맬컴 생스터 Dave Mossop, Malcolm Sangster

캐나다 출신으로 2007년부터 셰르파 시네마에서 데이브 모습은 감독으로, 맬컴 생스터는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Both were born in Canada and they have been working together at Sherpas Cinema since 2007.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나만의 스텐트 All My Own Stunts

UK | 2014 | 1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로브 자먼은 하강 산악자전거 전문가이자 전문 스텐트맨이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두 분야에서 최고로 남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로브 자먼의 희열은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Rob Jarman is a downhill mountain bike specialist and a professional stuntman. Following a near-fatal accident, he has battled to stay atop both fields. It's an emotional and gripping story about how hard it is to let go.



### Dir. 엘러스테어 리 Alastair Lee

영화감독이자 등반가이다. 그의 산악 환경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혁신적인 영화 작품과 뛰어난 촬영기술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모험 영화에 있어서 영화 기술의 선두에 서 왔으며 스펙터클한 배경과 시선을 사로잡는 이야기들을 선보여 왔다.

He is a film maker and climber. His genuine passion for the mountain environment is best expressed through his innovative film work and superb cinematography. He has sort out the most spectacular settings and gripping stories.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대니 맥어스킬의 리지 Danny MacAskill: The Ridge

Scotland | 2014 | 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라이얼 자전거 선수, 대니 맥어스킬이 돌아왔다. 스코틀랜드의 아름다운 스카이 섬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맥어스킬이 새로운 도전에 심취해 있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그 새로운 도전이란 바로 약명 높은 컬린 리지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

World-renowned trials rider Danny MacAskill is back! Filmed on the stunning Isle of Skye in Scotland, MacAskill returns to his childhood haunt for a new challenge: riding a mountain bike on the infamous Cuillin Ridge.



### Dir. 스투 톰슨 Stu Thomson

독창적인 컨셉과 시각적으로도 놀라운 다수의 영화들을 연출했다. 최근 장면 BBC 다큐멘터리 <더 리지>를 연출하고 제작했다.

He has visually stunning films to a multitude of international brands. Recently he has directed and produced the BBC documentary *The Ridge* along with the accompanying viral.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북극 서핑 Arctic Swell - Surfing the Ends of the Earth

USA | 2014 | 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차가운 물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즐겨 찍는 서핑 사진가 크리스 버카드. 평생에 한 번 찍을 수 있는 쇼트를 포착하기 위해 전문 서퍼들과 함께 지구 끝, 북극까지 달려갔다. 그와 친구들의 짜릿짜릿한 북극 서핑을 즐겨보자.

Surfing photographer Chris Burkard loves capturing cold water surfers. He's prepared to venture to the ends of the earth to snap that once in a lifetime shot.



### Dir. 안톤 로리메르, 크리스 버카드 Anton Lorimer, Chris Burkard

안톤 로리메르는 촬영상을 수상한 바 있는 촬영감독이자 강연가이다. 크리스 버카드는 독특한 사진가이자 예술가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on Lorimer is an award winning cinematographer and speaker. Chris Burkard is a self-taught photographer and artist, based in Central Coast California.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서퍼페스트2 Sufferfest 2: Desert Alpine

USA | 2014 | 2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서퍼페스트1>에서 극한의 고통의 고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시더 라이트와 알렉스 호놀드가 돌아왔다! 이번 미션은 사우스웨스트 국립공원에서 한 달간 자전거를 타고 사막 탐에 오르는 것이다. 이 재빠른 친구들에게 이번 미션도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Cedar Wright and Alex Honnold are back! This time, a month riding their bikes and climbing desert towers in the American Southwest should be a piece of cake for these fast friends. Or will it?



### Dir. 시더 라이트 Cedar Wright

전문 산악인자 영화감독이다. 노스페이스 팀 소속으로 모험적이고 과감한 첫 등정 기록들을 세워가며 전세계를 여행해 왔고, 글과 영화를 통해 자신의 탐험들을 기록하고 있다.

Cedar Wright is a Professional Climber and Filmmaker. As a member of The North Face Team, he has traveled the world establishing adventurous and daring first ascents, often documenting these exploits through his writing and cinematography.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썬독 Sun Dog

USA | 2014 | 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쌓인 멋진 산길을, 스키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What could be better than riding gorgeous lines of untouched snow with your best friend at your side?



Dir. 벤 스텐글루스키 Ben Sturgulewski

콜로라도 대학에서 영문학과 영화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스위트그래스 프로덕션 소속 감독이며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스키 영화들을 잇달아 제작하고 있다.

He graduated as an English-film major in Colorado College. he is a director at Sweetgrass Productions, which has been churning out soulful and poetic backcountry ski films since the mid-2000s.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와일드 우먼 Wild Women - Faith Dic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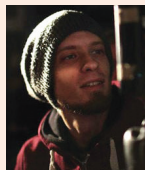
UK | 2014 | 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전문 슬랙라인 선수, 페이스 디키가 보여주는 줄 위에서의 즐거운 삶. 아슬아슬한 고난도의 줄타기를 하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다. 그녀를 보며 함께 웃어보자!

Smile and laugh along with slack-liner Faith Dickey as she shows us just how fun life on the line can be.



Dir. 보이테크 코자키에위츠 Wojtek Kozakiewicz

음악, 영상, 등반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전업 사진작가이자 촬영감독이다. 백색 석회암, 암벽등반, 고유한 문화가 풍성한 폴란드의 크라쿠프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Having a strong desire to merge his passions of music, moving images and climbing - is what has led he to become a full-time photographer and cinematographer. He is based in the beautiful city of Cracow, Poland.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좌충우돌 사막횡단 Into the Empty Qu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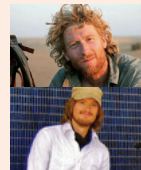
UK | 2013 | 2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모험가인 엘리스테어 험프리스와 레온 맥캐런은 자신들의 영웅인 윌프레드 테자이어에게서 영감을 받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톨랄랄리 사막으로의 여행을 시도한다. 1,000 마일의 여행길은 매일매일이 사건사고의 연속.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길을 따라 가면서 웃는 것뿐.

Inspired by their hero Wilfred Thesiger, adventurers Alastair Humphreys and Leon McCarron attempt a trip into the Empty Quarter desert on the Arabian Peninsula. The 1,000-mile journey sometimes puts the cart before the camel and then, all you can do is laugh along the way.



Dir. 엘리스테어 험프리스, 레온 맥캐런 Alastair Humphreys, Leon McCarron

엘리스테어 험프리스는 모험가이자 블로거,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이다. 레온 맥캐런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모험가, 감독, 작가이자 장거리 탐험의 전문가이다.

Alastair Humphreys is an adventurer, blogger, author and motivational speaker. Leon McCarron is a Northern Irish adventurer, filmmaker, writer and motivational speaker.

8.29 Sat 20:00  
UMFF시네마  
UMFF Cinema

8.31 Mon 17: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터치 Touch

France | 2014 | 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그리스 산토리니 개인 풀장, 프랑스 샤키니의 눈 덮인 산꼭대기, 대형 관광버스 지붕, 그리고 아스팔트 길 위를 패러글라이딩으로 날면서 동시에 발로 가볍게 터치하는 장 바티스트 상들리에. 모기에 가까운 기술을 너무나도 가볍고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까지 통쾌하게 만든다.

Touch is a colorful and spectacular flying tour of Santorini in Greece, the Aiguille du Midi above Chamonix and the Col du Galibier in France, with a bit of cheekiness added in, just for fun.



Dir. 장 바티스트 상들리에 Jean-Baptiste Chandelier

2004년부터 패러글라이딩 파일럿 일을 해왔으며, 아크로바틱 근접 비행이 특징이다. 그의 목표는 경기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행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면서 비행의 느낌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I show my vision of flying. I have been a paragliding pilot since 2004 and my thing is the acrobatic and proximity flight. Besides competition, my goal is to share the feeling of flight with my videos to make everyone dream of flying.

## 산+누림 M+Pleasure

모험, 탐험, 여행을 통해 산과 자연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

도시의 루저였던 청년이 진정한 '산 사나이'로 변해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우드잡>,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뚜르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한국의 자연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낸 8편의 한국애니메이션 모음, 그리고 푸른 빛의 바다가 화면 전체로 가득 차오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뤽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 리마스터링 확장판은 필수 관람작이다.

M+Pleasure section presents the films portraying the people who love and enjoy the nature through the adventure, the expedition and the travel.

*Wood Job* by Shinobu Yaguchi following the joyful progress of a young loser turning into a true 'man of woods', *Tour de Force*, a film that reminds us of the meanings of true sportsmanship and the selection of 8 Korean animated shorts expressing the nature of Korea in various colors, Last but not least, the re-mastered expanded version of *The Big Blue* by Luc Besson is a definite never-to-miss treat of the section.

8.29 Sat 16:00  
8.31 Mon 13:00  
울주청소년수련관  
Uiju Youth Center

## 그랑블루 The Big Blue

France, USA, Italy | 1988 | 168min | DCP | Color | Fiction | 15



**Producer**  
Patrice Ledoux

**Cinematography**  
Carlo Varini

**Editor**  
Olivier Mauffroy

**Music**  
Eric Serra

**Cast**  
Jean Reno  
Jean-Marc Bar  
Rosanna Arquette

뤽 베송의 부모는 모두 다이버였고, 어릴 적 그의 꿈은 돌고래 조련사였다. 하지만 사고로 부상을 입으며 꿈을 접어야 했고, 영화감독이 된 뤽 베송에게 <그랑 블루>는 이루지 못한 꿈의 영화적 실현인 셈이다. 세 명의 인물과 바다라는 거대한 푸른 공간으로 이뤄진 이 영화는, 그 단순함만큼 심원하다. 그 끝에 닿으려는 듯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는 자크와 엔조. 친구이자 경쟁자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잠수'라는 행위를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미 보았더라도 극장의 큰 화면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스크린으로 재관람해야 할 영화. 다이버로 카메오 출연하는 젊은 날의 뤽 베송도 찾아보시길.

Luc Besson's parents were the divers and Besson's childhood dream was to be a dolphin trainer. But he had to give up his dream when he got wounded by an accident. So for Luc Besson, *The Big Blue* could be a cinematographic realization of his dream.

This movie, a story about three people and the giant blue space of the ocean is simple yet profound. Jacques and Enzo try to go deeper into the sea as if they're reaching its bottom. The story of these two friends and competitors at the same time make us contemplate on the topic of life and death through their act of diving. The film you should see again on a big screen even if you've already seen it.



### Dir. 뤽 베송 Luc Besson

현란한 조명과 인공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기존의 영화 스타일과는 다른 독특한 화면을 창조해 낸 뤽 베송 감독. 그의 작품들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선사하며 유명 감독의 대열에 올랐다.

Luc Besson created the unique visuals on screen nothing like we've seen before using the flashy lightings and the artificial images. His films stimulated a lot of people and made him one of the most famous filmmakers of his generation.



8.30 Sun 16:00  
9.1 Tue 13: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뚜르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Tour De Force

France | 2013 | 97min | DCP | Color | Fiction | ㉠



**Producer**  
Olivier Delbosc

**Cinematography**  
Gilles Porte

**Editor**  
Antoine Vareille

**Music**  
Andre Manoukian

**Sound**  
Hortense Bailly

**Cast**  
Clovis Cornillac  
Bouli Lanners

1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20여 구간에 걸친 약 4,000킬로미터의 거리를 오로지 두 바퀴에 의존해 돌파해야 하는 여정. '뚜르드 프랑스'는 사이클 마니아들에겐 꿈의 이름이며, 프랑수아도 그들 중 하나다. 어릴 적엔 프로 선수를 꿈꾸었으나 지금은 사이클 판매원으로 살아가는 중년남 프랑수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이룬다. 코미디 장르 특유의 과장과 우연이 있긴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영화. 대회를 둘러싼 천박한 상업주의와 과열된 미디어를 풍자하기도 한다. 경쟁이 아닌 성취로서 스포츠를 대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인간적으로 성숙해가는 프랑수아의 모습은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 여기에 소박한 가족주의가 어우러진다. 베르나르 이노, 로랑 잘라베르 같은 사이클의 레전드들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The journey on two wheels where you should go 4,000km of more than 20 sections; Tour de France, with its history of more than a century is the dream for the cycle maniacs and Francois is one of them. He once dreamed to be a professional cycle athlete but ended up being a middle aged cycle seller. But he still lives his dream in his own way. Despite the typical exaggeration and forced coincidences of comedy genre, the film is enjoyable with the beautiful scenery in it. It also offers the satire of the shallow commercialism and the excessiveness of the media evolving around the event. The message that Francois conveys us when he takes the sports as the accomplishment not as the competition and he's growing up as a human constantly pushing his own boundaries is the best thing this film could offer to the audiences. The simple and humble family values are another charm of the movie along with the stellar cameo presences of the legend cyclists such as Bernard Hinault and Laurent Jalabert.



### Dir. 로렌트 투엘 Laurent Tuel

로렌트 투엘은 프랑스 영화배우이자 감독, 작가이다. 1989년 23살 때 자신의 첫 단편영화 <셀레스테>를 선보였다. 2007년 영화 <장-필리프>로 세자르 영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영화 <인사이드 링>(2009) 작가로도 활동하였다.

Laurent Tuel is a French film actor, director and writer. He released his first short film *Céleste* in 1989, when he was 23. In 2007 he was nominated for César Awards for his film *Jean-Philippe*. He is the author of film *Le Premier Cercle* (2009).

8.29 Sat 13:00  
8.31 Mon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우드잡 Wood Job

Japan | 2014 | 116min | DCP | Color | Fiction | ㉠



**Producer**  
Nobuhiro Azuma

**Cinematography**  
Akiko Ashizawa

**Editor**  
Ryuji Miyajima

**Music**  
Takuji Nomura

**Sound**  
Hiroshi Ishigai

**Cast**  
Shota Sometani  
Masami Nagasawa

소소하면서 한적한 유머를 만들어내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개성이 잘 드러난 작품. 설정이나 이야기 구조는 평범하며 전형적이지만, 잔잔한 웃음과 함께 전해지는 울림은 만만치 않다. 도시의 루저였던 주인공 유키는 우연한 계기로 산림 연수생이 되고 오지로 발령을 받는다. 조금씩 '산 사나이'가 되어가는 유키. 무의미했던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나무'라는 자연과 '일'이라는 인간의 영역을 결합시킨 제목이 암시하듯, <우드잡>은 '조화'에 대한 영화다.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무는 돈벌이 이상의,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심어졌고 자신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존재다. 인간은 이러한 순환의 일부일 뿐, 결코 자연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소박한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앙상블이 일품. 힐링의 기운과 함께 기분 좋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다.

A typical Shinobu Yaguchi film with trivial and carefree humor. Yuki, a once loser in the city, happens to be forestry trainee and is assigned to a remote village. He gradually progresses into being a 'man of woods' and his meaningless life turns into something different. As implied in the title,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domain of nature 'wood' and the domain of human 'job', the film is about the harmony. For the people who live in the forest, the tree is something more than to make money, it's the thing that was planted before they were born, and that they should inherit to their descendants. Humans only plays a part of this circle, never can own the nature.



### Dir. 야구치 시노부 Shinobu Yaguchi

일본 영화계에서 '무서운 아이'로 묘사되는 감독은 늘 블랙유머, 예측 불가능한 반전, 기발함으로 관객을 즐겁게 하며 연속되는 사건들을 롤러코스터처럼 하나로 조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낸다. 국내 개봉된 대표작으로 <스윙걸즈>가 있다.

He is always described as a 'scary kid' in the Japanese film scene, since he entertains his viewers with black comedy, unforeseeable reverse, his novelty. He creates his own style combining a train of events or sequences into one line like a roller coaster.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6월의 산 Mountain of June

Korea | 2010 | 7min | DCP | Color | Animation | ©



싱그럽고 녹음이 짙은 6월의 산. 아버와 아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른다. 산이 그들에게 선물한 기분 좋은 오후.

On a mountain in June all the freshness and green staying around a father and a son climb with light steps. The mountain presents them fresh afternoon.

Dir. 김도연  
KIM Do-yeon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Booroo

Korea | 2006 | 15min | DCP | Color | Animation | ©



크고 작은 산들 사이의 숲속에 부루가 살고 있다. 부루는 큰 느티나무 뿌리 속에서 잠자며 나무와 풀, 동물들과 어울려 산다. 언제부턴가 멀리서 정체를 몰름 짐을 들러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루는 그저 매일이 즐겁기만 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부루가 살고 있는 숲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결국 숲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서지게 된다.

There Booroo lives in the deep forest. He sleeps under the root of a big tree and has some fun with trees, grass and animals. Suddenly unpleasant loud noises are being coming from somewhere. But since then, the forest where Booroo lives has gone through some strange things and, in the end, it is destroyed by development.

Dir. 권미정  
GWON Mi-jeong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Natural Urban Nature

Korea | 2013 | 5min | DCP | Color | Animation | ©



자연스러운 도시의 자연. 16:9 영상 프레임의 간헐 포맷 안에서 변하지 않는 자유스러운 자연의 속성과, 또 그것을 정리하고 다듬는 도시 속 우리들의 모습을 다양한 식물들의 화려한 움직임, 원시 자연현상의 패턴과 모든 것을 귀획화 시켜놓은 도시, 직선과 곡선의 일률적인 이미지를 대비시켜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What is the 'Nature' in urban city? It might be unnatural nature made by human beings according to urban planning. I expressed unlimited natural nature and modern city into 16:9 ratio video format.

Dir. 강민지  
KANG Min-ji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내친구 고라니 My Friend Go-Ra-Ni

Korea | 2009 | 4min | DCP | Color | Animation | ©



지리산 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과 멧돼지는 오늘도 사이 좋게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꿀과 사과를 먹으며 지내고 있다. 이상한 울음소리에 주위를 보니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울무에 걸려 있다. 이제 울무에 걸린 고라니를 구하기 위한 반달가슴곰과 멧돼지의 힘겨운 노력이 시작된다.

An asiatic black bear and a wild boar in Jirisan National Park get along very well eating honey and apples. One day, they find that a little elk is caught in a trap and try to save this baby.

Dir. 장형운  
CHANG Hyung-yun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오늘이 O-Nu-Ri

Korea | 2003 | 16min | DCP | Color | Animation | ©



계절의 향기와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사람들은 원천강이라고 불렀다. 그곳에서 여의주와 커다란 학 '야'와 살던 소녀는 어두운 밤 침입자들에게 난폭하게 납치당한다. 배가 난파되고 홀로 여딘지 모르는 섬에 떨어진 소녀. 소녀는 행복했던 원천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40만 권의 책을 읽은 소녀와 머리 위에 비구름을 달고 다니는 소년과 아무리 여의주를 모아도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를 차례로 만난다.

In the beginning of time, there lives a girl named O-Nu-Ri in an island called Won-Chun Khang. No one knows when and where O-Nu-Ri was born and coming from. Won-Chun Khang is a beautiful place where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originated. In this peaceful land, O-Nu-Ri lives with a mother-like big crane named "Ya-Ah." One quiet night, O-Nu-Ri is kidnapped by several men. Here, O-Nu-Ri's long journey begins in search of Ya-Ah in Won-Chun Khang.

Dir. 이성강  
LEE Sung-gang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lju Youth Center

## 오목어 Noodle Fish

Korea | 2012 | 10min | DCP | Color | Animation | ©



국수용 소면을 쌓아놓고 한 장면씩 눌러서 만든 핀스크린 애니메이션. "어른이 되려면 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작은 웅덩이에 사는 오목어 앞에 화두를 던지고 사라진 울혈어들. 그때부터 물 밖을 향한 오목어의 여행이 시작된다.

Noodle Fish is a pin-screen animation made with plain noodles. The tadpoles say to the Noodle Fish, "To be a grown-up, you've got to get out of the water." Having said this, the tadpoles disappear and the Noodle Fish begins his journey toward the world outside the water.

Dir. 김진만  
KIM Jin-man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ju Youth Center

## 인생 The Life

Korea | 2003 | 10min | DCP | Color | Animation | ©



한 아기가 눈을 뜨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등이 보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돌기둥을 오르고 있는 아버지. 뭔가 큰 집을 짊어지고 한없이 오르기만 한다. 이제 세월이 지나 아들은 성장 하고 아버지는 늙어, 집을 넘겨받은 아들이 앞장서 간다. 늙어 기력이 다한 아버지를 남겨둔 채 큰 짐을 들쳐 메고 계속 돌기둥을 오르던 아들도 늙어갈 때쯤 돌기둥의 끝이 보이고 기뻐하며 정상에 올라온 아들은 집을 쫓는다. 돌기둥의 한 부분과 다르지 않은 넓적한 돌덩이. 아들은 정상에 한 귀퉁이에 돌을 조심스레 세워두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내려간다.

A man carrying his little son on his back climbed up the totem-pole. As many years go by, the man passed away and his grown-up son kept on climbing. Finally, the grown-old son reached to the top and put one piece of the totem-pole. However, the only way he got was going down.

Dir. 김준기  
KIM Jun-ki

## 산+울림 M+Panorama

세상 곳곳의 다양한 산악문화와 그 곳에 동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철학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

도심 한가운데로 양떼를 몰고 나타난 양치기의 꿈에 대한 동화 같은 영화 <마지막 양치기>, 나무의 인생을 한 편의 시처럼 우아하게 풀어낸 <걷는 나무>, 세계적인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작품과 삶을 강렬한 스펙터클로 담아낸 빔 벤더스 감독의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마지막으로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려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밀양 아리랑>까지,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자연도 인간과 똑같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들이다.

M+Panorama section reminds us of the preciousness of the nature and environment through the heartwarming films featuring the various mountain cultures around the world and the lives and the philosophy of the people living in them.

*The Last Shepherd* tells a fairytale-like story about the dream of a shepherd who turns up in the middle of the city with his hundreds of sheep, *Trees That Walk* elegantly portrays the life of trees like in a poem, *The Salt of the Earth* shows us the life and the works of the world renowned photographer Sebastião Salgado with strong spectacles. *Legend of Miryang 2* introduces us the record of the struggle by the residents of Miryang against the power that tries to turn the land of life into the land of death. All these movies help us to realize that the nature around us is also the life breathing just like us.

8.30 Sun 13:00  
9.1 Tue 16:00  
울주청소년수련관  
Uju Youth Center

## 할망 Hal Mang

Korea | 2006 | 9min | DCP | Color | Animation | ©



제주도를 만드는 거인 할머니. 그리고, 아이는 할머니가 만든 오름에서, 백록담에서 논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는 제주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데…….

An old woman created Jeju Island. And a young girl plays in the mountain, Bak-Rok-Dam which the old woman created, too. Many years later, the young girl sees an ideal world outside of Jeju Island.

Dir. 김도훈 KIM Do-hun  
김정우 KIM Jung-woo  
김현주 KIM Hyun-ju  
이진아 LEE Jin-a  
오지은 OH Ji-eun  
최윤경 CHOI Youn-kyoung

8.29 Sat 14:00 **CV**  
 8.31 Mon 11:00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 걷는 나무 Trees That Walk

Italy | 2014 | 5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Producer**  
 Paola Porrini Bisson  
 Mauro Calevi

**Cinematography**  
 Jacopo Loioldice

**Editor**  
 Valentina Cicogna  
 Veronica Scotti

**Music**  
 Gabriele Mirabassi

**Sound**  
 Simone Olivero

**Cast**  
 Davide Baiocco  
 Antonio Baiocco  
 Vitale Giacomelli  
 Patrizio Giacomelli  
 Nicola Morandini

예수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된 벳새다의 시각장애인인 처음으로 사람을 본 후 한 말, "사람은 걸어 다니는 나무네오." 벌목공에 의해 쓰러지는 커다란 나무들 위로 앞의 이야기기가 들려지며 영화는 시작된다.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한 많은 나무는 마치 여행을 하듯이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어딘가에서는 악기로, 또 어딘가에서는 배로, 가구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화가 출신의 마티아 콜롬보 감독은 숲 속에서 시작해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서 살다 다시 숲 속으로 돌아가는 나무의 여정을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이 더해진 한 편의 시처럼 보여준다.

The blind man at Bethsaida, who when Christ returns his sight, after having wetted his eyes with saliva, exclaims "I see men like trees that are walking." The film begins with this narration over the images of trees felled by the loggers in the forest. Trees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as if they are traveling around the world. As a string, a boat, a furniture piece and more, they are born again in various forms by the hands of human being. Director Mattia Colombo, who is painter as well, portrays the journey of the trees very poetically, from their birth in the forest to the life in the human world then eventually their return to the forest.

### Dir. 마티아 콜롬보 Mattia Colombo

1982년생.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아카데미미 디 벨르 아르티에서 학위를 받은 후 다큐멘터리 연출 석사과정에 들어갔다. 첫 단편 다큐멘터리 <일 벨로>는 수녀들의 작은 공동체에 대한 마법 같은 이야기로 다양한 국제 영화제에서 경쟁부분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는 현재 첫 장편 다큐멘터를 마무리하고 있다.

Born in 1982. After receiving his degree from the Accademia di Belle Arti in Florence, he attended a master's program for directing documentaries. His first short documentary film, *Il Velo*, a magical story about a small community of nuns that was selected for competi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festivals. He is currently finishing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8.30 Sun 11:00  
 9.1 Tue 14:00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 마지막 양치기 The Last Shepherd

Italy | 2012 | 81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Producer**  
 Anna Godano

**Cinematography**  
 Michele D'Attanasio

**Editor**  
 Valentina Andreoli

**Sound**  
 Claudio Bagni

**Cast**  
 Renato Zucchelli  
 Piero Lombardi  
 Lucia Zucchelli  
 Patrizia Frisoli  
 Hedy Kriss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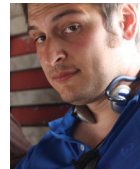
레나토 주켈리는 아직도 봄, 여름, 가을까지 산에서 양을 방목하고 겨울이면 도시로 양을 데리고 내려오는 이탈리아의 마지막 유목 양치기이다. 양치기는 레나토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유일한 직업으로, 그는 광활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양치기로 사는 삶을 사랑하며 자긍심 또한 크다. 그래서 레나토는 도시의 아이들에게 자신만이 해줄 수 있는 짝짝 선물을 준비한다. 바로 한 번도 양을 본 적이 없는 도시의 아이들이 실제 양과 양치기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밀라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선 두오모 성당 광장으로 700마리가 넘는 양 떼를 데리고 나타난 레나토와 이들을 향해 함박웃음을 지으며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감동의 장관을 선사한다.

Renato is the last nomad shepherd in Italy who still pastures the sheep from the spring to the fall and brings the sheep to the city in the winter. Being shepherd was the only dream that he's ever had since little kid. He loves his life as shepherd and is truly proud of what he does. So Renato prepares a surprise gift in his own way for the kids in the city; to give the chance to see the sheep in real to the kids who have never seen the real sheep in their lives. The scene where Renato finally arrives at the Duomo of Milan with 700 sheep and the children are running towards Renato and sheep makes such a heartwarming spectacle.

### Dir. 마르코 본판티 Marco Bonfanti

2011년 첫 장편영화 <마지막 양치기>의 한 장면을 찍기 위해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으로 700마리 이상의 양떼를 끌고 갔으며, 이는 곧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고, 영화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전세계 영화제들에 초대되었다. 2014년 연출작 <투비올로 에 라 루나>는 제기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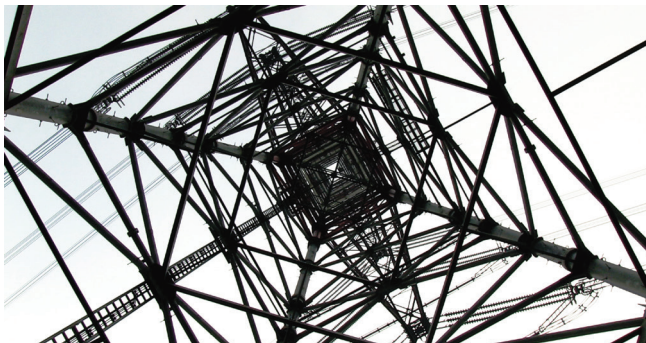
On October 2011, he brought a flock of more than 700 sheep to Piazza del Duomo in Milan in order to shoot a scene of his first feature film *The Last Shepherd*. This story was reported in international press and the movie quickly became an outstanding success. In 2014 he directed *Tubiolo e la Luna* which received at the Venice Film Festival.



8.30 Sun 14:00 **CV**  
9.1 Tue 11:00  
울주문화예술회관  
Uiju Arts Center

## 밀양 아리랑 Legend of Miryang 2

Korea | 2014 | 10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㉔



**Producer**  
박배일 PARK Bae-II

**Cinematography**  
박배일, 이경희 PARK Bae-II, LEE Kyung-hee

**Music**  
김현석 KIM Hyeon-seok  
(with 449project)

**Sound**  
김병오 KIM Byeong-o

**Cast**  
김영자, 박은숙, 김말해,  
손희경 KIM Young-ja,  
PARK Eun-suk, KIM Mal-  
hea, SON Hee-keong

<Jam Docu 강정>(2011) <두 개의 문>(2012) <천안함 프로젝트>(2013) <다이빙 벨>(2014)…. 공권력에 대한 의문과 그 억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근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테마다. <밀양 아리랑>도 연장선상에 있다. 송전탑을 둘러싼 밀양 주민들의 10년에 걸친 투쟁을 담아낸 이 작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밀양 아리랑>은 ‘땅의 사람들’이 지닌 생명의 힘에 주목한다. 그들은 투쟁의 와중에도 과일을 따고, 여물을 주고, 감자를 심는다. 송전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 땅에서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생산의 역사’에 가하는 폭력인 셈이며, 주민들은 역사의 단절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저항한다. 뉴스 속의 이슈가 아닌, 진짜 밀양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Jam Docu Gang-jeong(2011), 2 Doors(2012), Project Cheonan Ship(2013) and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2014)…. Questioning and problem posing to the governmental authority and its suppression became an important theme recently in the documentary scene. Legend of Miryang 2 is one of those films. The film depicting the 10 year long struggle and fight of the residents of Mirya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s, shows in what kind of the world we are living. Legend of Miryang 2 pays its attention to the power that ‘the people of earth’ possess. Amidst the fight, they pick the fruit, feed the kettle and plant the potatoes. For them the transmission powers are not just the construction, it is the violence done to ‘the history of production’ made on their earth for a long time so they resist for their life to prevent the rupture of the history. The real Miryang, not as the issue in the news breathes in this film. And their struggle goes on.*



**Dir. 박배일 PARK Bae-II**

열정 할머니의 삶을 담은 <그들만의 크리스마스>(2007)로 다큐멘터리 연출을 시작했다. 이어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점차 넓혀 가며 부산을 기반으로 꾸준히 다큐멘터를 제작하고 있다.

He is currently working in an independent film group, Ozifilm. Inspired by an old lady in his neighborhood, he made his first short documentary, *Just Their Christmas* (2007). Dreaming of a world without any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women and the disabled, he is currently working on other documentary projects.

8.29 Sat 11:00  
8.31 Mon 14:00  
울주문화예술회관  
Uiju Arts Center

##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The Salt of the Earth

France, Germany, Brazil | 2014 | 110min | DCP | Color+B&W | Documentary | ㉔



**Producer**  
David Rosier

**Cinematography**  
Hugo Barbier

**Editor**  
Maxine Goedicke

**Music**  
Laurent Petitgand

**Sound**  
Régis Muller

**Cast**  
Sebastião Salgado

음악, 패션,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했던 빔 벤더스 감독은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에서 브라질의 사진작가 세바스티앙 살가두와 만난다. 시작은 소박하다. 살가두라는 예술가에 대한 벤더스의 개인적 관심이다. 이후 살가두의 작품 세계가 펼쳐지고 자연스레 피사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민중들, 전 세계의 노동자들, 기아와 전쟁으로 죽어가는 난민들…. 그 현장은 흑백 사진 속에서, 이토록 처참한 현실에서도 ‘미’(美)를 이끌어내는 작가가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고 처연하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살가두는, 10년 동안 2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파괴된 자연을 회복한다. 인류와 지구에 대한 기록. 혹은 그 어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 강렬한 스펙터클의 다큐멘터리다.

Wim Wenders has been trying the collaborations with the various kinds of art such as music, fashion and dance. In *The Salt of the Earth*, he finds a new collaborator, the Brazilian photographer Sebastião Salgado. The film began from a simple thing; Wender's personal interest in Salgado as artist. Then the world of Salgado's art are shown followed by the story about his subjects; the people in Africa and Latin America, the workers around the world, the refugees dying from the starvation and the war. When he came back home, Salgado planted 2,5million trees during 10 years and restored the nature.



**Dir. 빔 벤더스 Wim Wenders** **홀리아노 리베이로 살가두 Juliano Ribeiro Salgado**

빔 벤더스 감독은 <사물의 상태>(1982)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후 <파리, 텍사스>와 <베를린 천사의 시>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홀리아노 리베이로 살가두 감독은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아들로 1974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After *The State of Things* (1982) won the Golden Lion Awards at Venice Film Festival then, Wenders became on the rolls of world masters by directing *Paris, Texas* and *Wings of Desire*. Juliano Rebeiro Salgado is the son of Sebastião Salgado, born in 1974 at Paris, France.

8.30 Sun 11:00  
9.1 Tue 14:00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 시월의 끝 By the End of October

Italy | 2014 | 1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International Premiere



19년 전, 세계 여행을 떠나온 미국출신 트레이시는 이탈리아 남부 티롤에서 발이 묶이게 된다. 그 이후로 그녀는 산속에서 외롭게 고립되고 조용한 염소 치기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가을 동물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삶을 카메라가 조용히 따라가 본다. 그녀는 어떻게 겨울의 긴 외로움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왜 미국 콜로라도의 옛집을 떠나서 서구의 규범을 벗어난 삶을 살고자 결정했는지를 설명한다.

On a world trip, 19 years ago, Tracy from America stranded in South Tirol. Since then she lives lonesomely in the mountains the secluded and quiet life of a goatherd. Through the last autumn a slow and still camera is accompanying her life with the animals. She explains how the long periods of loneliness in winter are changing her, why she decided to leave her old home Colorado to live a life far from the western n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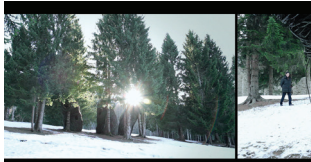
Dir. 막시밀리안 슬레후버 Maximilian Schlehuber

1990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 고등학교를 마친 후 인턴 사운드 녹음기사 및 카메라 보조로 일했으며, 현재는 이탈리아 젤리그 영화학교에 재학 중이다. He was born 1990 in Hamburg. After finishing school he did internships doing sound record and camera assistant. Now he is attending the ZeLIG film school in Italy.

8.29 Sat 14:00  
8.31 Mon 11:00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 예술 계수 7번 Art Coefficient 07

Italy | 2015 | 1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Asian Premiere



<예술 계수 7번>은 이탈리아 아르테 셀라 생태 공원에서 촬영된 예술 계수 프로젝트의 일곱 번째 비디오 작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접착제나 철사를 사용하지 않고 나뭇가지들을 엮어 친환경 조형물을 만들어 온 미국의 예술가 패트릭 도허티의 “나는 자유야”라는 작품을 소개한다. 살아 있는 나무 옆에 기대선 커다란 나뭇가지 조형물들은 예술 작품이 아닌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자연의 덩어리 그리고 놀이터로 느껴진다.

Art Coefficient 07 is the seventh video of the Art Coefficient project and it has been shot in the eco park of Arte Sella in Italy. In particular the meeting of this episode, the only one of the series shot in exterior between woods and mountains, takes place between the art work “You are free” by Patrick Dougherty and Graziano. As framework for this encounter, there is the winter and the nature of the Sella Valley.



Dir. 말리 베유 Mali Weil

말리 베유는 엘리사, 디 리베라토, 로렌조 파치넬리, 마라 페리에리가 2008년에 설립한 예술 플랫폼이다. 주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하며 디자인, 멀티미디어, 시청각용 프로젝트들을 통해 시적인 작품들을 만든다.

Mali Weil is an artistic platform established in 2008 by Elisa, Di Liberato, Lorenzo Facchinelli and Mara Ferrieri. It operates between Italy and Germany. Through projects that ranges from design, multimedia, audiovisual formats.

## 네팔특별전: 네팔의 희망

### Special Program: Hope of Nepal

지난 4월 말 발생한 네팔의 대지진은 히말라야를 사랑하는 산악인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선 2000년도부터 아시아 최초의 산악영화제인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선배 산악영화제인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와 네팔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표하기 위해 네팔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 소개되는 영화는 모두 3편으로, 2014년 카트만두 국제산악영화제의 수상작들이다. 산골마을 소녀 축구단의 놀라운 실화 <수나칼리>, 소유와 배려라는 다소 상충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 <푼테의 바퀴>, 네팔을 떠나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한 가족의 일상을 다룬 <포완>, 3편 모두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네팔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

At the end of April occurred the Nepali Earthquake, which brought a big shock and sadness to many people as well as every climber who loves Himalaya.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has been held in Katmandu, the capital city of Nepal since 2000, which is the first mountain film festival in Asia.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refore, has prepared for the section of Special Program: Hope of Nepal so as to express our support to Nepal and our fellowship to Kat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Special Program: Hope of Nepal will screen three films, the prize-winners of Kat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n 2014. *Sunakali* is an amazing true story about the girl soccer team in a mountain village, *Punte's Wheel* conveys a story about a boy growing up with conflicting experiences of possession and consideration, *Pawan* deals with everyday life of a family who has just started a new life as an immigrant after leaving Nepal. These three films contain the stories about the girls and the boys who draw social changes through their individual changes. You will have a great chance to meet the bright future and the hope for Nepal from this section.

8.30 Sun 14:00 **GV**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수나칼리 Sunakali

Nepal | 2014 | 4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Producer**  
Prakash KC  
Jeewan Shrestha  
Manoj Maharjan

**Editor**  
Bharat Mani Regmi

**Sound**  
Rubin Shrestha  
(Kutumba)

**Cast**  
Sunakali Budha

버스도 다니지 않는 네팔의 깊은 산골 마을 무구의 소녀들이 축구를 한다. 집에서 끌고 나온 염수들이 풀을 뜯어 먹는 동안, 소녀들은 까르르 웃으며 산 위에서 축구공을 차고 논다.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대표 선수가 된 소녀들. 산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역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후, 생전 처음으로 버스와 비행기를 타고 국가 대항전까지 출전한다.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수나칼리의 활약으로 무구 팀은 결국 우승을 하고, 선수들은 마을을 빛낸 공로로 금의환향한다. 여자가 무슨 축구냐며 반대가 강했던 수나칼리의 부모는 국가대표가 된 딸의 장래를 위해 14살에서 16살이 되면 시집을 가야 하는 지역의 관습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 2014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 최우수 산악영화 수상작으로, 변화하고 있는 네팔의 현재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수작.

The girls play soccer in Mugu, a remote village of Nepal where even a bus does not commute. While their goats are grazing on grass, the girls kick the soccer ball on the mountain with bursting out laughing. They are chosen to play for their school, but they should brave the object of their parents. After they win at the local tournament with their ability from the mountain, they ride buses and airplanes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to participate to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finally. The best striker Sunakali actively plays and leads the Mugu team to win. They return to the village in glory. For the sake of their daughter's future, Sunakali's parents finally make a decision that they will not follow the local practice that a girl at the age of 14 to 16 should get married. This film is the winner of the Best ICIMOD Mountain Film Award of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2014. This decent film also shows what is now changing in Nepal.



### Dir. 보즈라즈 밧 Bhojraj Bhat

영화 <수나칼리>는 보즈라즈 밧 감독의 다큐멘터리 데뷔작품이다. 현재 프랑스 팀과 공동으로 <네팔에서 인도로 가는 신장(腎臟) 루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Sunakali is Bhojraj Bhat's documentary debut. He is currently working with a French team in the making of the documentary *Nepal Kidney Trail to India*.

8.30 Sun 14:00 **GV**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포완 Pawan

UK | 2014 | 1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  
Korean Premiere



영국에 이민 온 지 이제 4달밖에 안 된 12살 소년 포완. 매년 없는 깨끗한 도로, 창문이 있어 비 맞을 걱정 없는 4층 건물의 큰 학교, 포완에겐 네팔과는 다른 영국의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또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거리의 잔디밭에 고향에서처럼 수선화를 심고 싶다는 엄마처럼, 포완도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었던 네팔이 그리다. 2014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 네팔파노라마 최우수다큐멘터리상 수상작.

It has been four months, since a 12 year old Nepali boy Pawan immigrated to England. He sees clean streets without exhaust gas and the four story school building with windows that let you not worry about getting wet from rain. This new environment unlike Nepal is unfamiliar and strange to him. As his mom says that she wants to plant a daffodil in the public lawn like hometown, Pawan misses Nepal where he could gambol in nature. His dream is that he will make much money to buy a land in Nepal and farm there. This film is the Best Documentary Award winner of Nepal Panorama at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2014.



### Dir. 락샤 반타와 Laxcha Bantawa

첫 뮤직비디오 연출작 <야트리>는 영국 학생영화제에서 최고 뮤직비디오 상과 최고의 후반작업 상 후보에 올랐으며 네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Her first music video *Yatri* for Nephop rapper Loorey was nominated for Best Music Video and Best Post Production in the British Student Film Festival and has also won the Nepalese Excellence Award.

8.30 Sun 14:00 **GV**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폰테의 바퀴 Punte's Wheel

Nepal | 2013 | 13min | DCP | Color | Fiction | ©  
Korean Premiere



카트만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년 폰테는 큰 바퀴를 사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하다. 큰 바퀴를 가지고 있는 동네 친구들이 골렘쇠만 가지고 있는 폰테를 무시하며, 바퀴 굴리기 놀이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엄마 몰래 돈을 훔쳐 큰 바퀴를 사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지만, 무서운 할아버지에게 장난을 치다 그만 바퀴를 빼앗기고 만다. 폰테는 다시 바퀴를 찾을 수 있을까? 2014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 네팔파노라마 최우수극영화상 수상작.

Living in the idle countryside of the Kathmandu valley, Punte feels bitter against his mother since she has not bought him a bigger wheel. His friends with bigger wheels look down on Punte because he only has a toy wheel, and they never let him in their wheel game. In the end, he steals his mother's money and buys a bigger wheel to play with his friends. But his wheel was the forfeit of his mischief to a scary grandfather. Can Punte get the wheel back from the grandfather?



### Dir. 사친 기미르 Sachin Ghimire

인류학자이자 영화감독으로 자와할랄 네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테무랄리>(2006), <다리아>(2012) 등을 연출하였으며, 네팔 국내외의 많은 영화제들에서 상영되었다.

Sachin Ghimire is an anthropologist and a filmmaker and completing his PhD at Jawaharlal Nehru University. He has directed *Maatemurali* (2006), *co-directed Diyalee* (2012). His films have been screened in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 2015 울주서밋 2015 Ulju Summit

2014년 가을 세 편의 극영화가 울주서밋의 첫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세 편 모두 한 편 이상의 연출경력을 갖춘 감독들의 프로젝트로 6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무사히 제작을 완료했다.

완성된 세 편의 작품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산과 자연이 영화 속의 배경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극의 흐름 및 주인공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오월>에는 과거와 현재의 아픔을 치유하고 내일을 위한 활력을 선사하는 산이 등장하고, <산의 남자>에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커다란 존재로, 또 <밤빛>에선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던 가족의 재결합을 이끌어내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울주서밋의 지원 취지를 살려 좋은 작품을 만들어준 세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elected three narrative films for the first project to be supported by the Ulju Summit in autumn 2014. All of them belong to the directors who have filmmaking experiences with more than one work. The directors only had six months to produce them, but completed their films safe and sound.

There is one thing in common among these three completed films. In their films, mountains and nature do not only exist as their sets, but play a key role to change the flow of the drama and the actions by protagonists. In *Begin Again*, the mountain heals the pain from past and present and offers energy for tomorrow. In *the Meaning of Mountain*, the mountain becomes a big existence convincing that a human is such a small being. The mountain plays a mediator role to reunite family members who used to live separately in *Night Light*.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ree directors who created these great works according to our purpose of the Ulju Summit.

8.29 Sat 17:00 **GV**  
8.31 Mon 14: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오월 Begin Again

Korea | 2015 | 20min | DCP | Color | Fiction | ©  
World Premiere



**Producer**  
이인성 LEE In-seong

**Cinematography**  
이태오 Ted Lee

**Editor**  
최현숙 CHOI Hyun-sook

**Cast**  
이다희 LEE Da-hee  
서신애 SEO Shin-ae  
노태엽 NO Tae-y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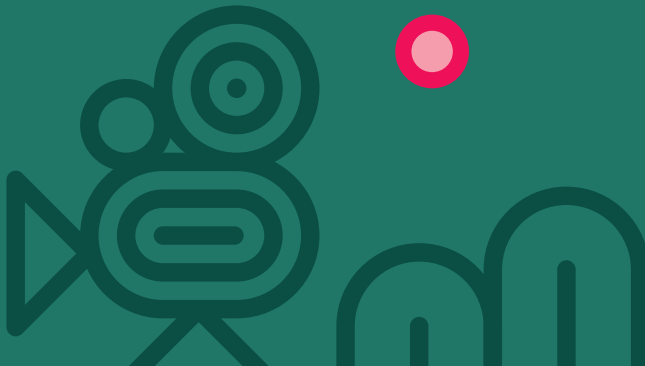
아침부터 엄마랑 싸우고 학교를 땡땡이친 채 산을 찾은 남학생. 이제는 꿈에서만 볼 수 있는 여동생과 함께 올랐던 산을 다시 찾은 '언니'. 자신의 음료수를 '언니'가 몰래 가로챘다고 오해한 남학생은 '언니'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거칠게 가로챈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남학생을 피해 도망치듯 산을 오르는 '언니' 사이에 짧은 추격전이 펼쳐진다. 둘 사이의 오해와 경계심은 갑자기 불어든 상쾌한 산들바람에 실려 날아가 버리고, 둘은 푸름으로 가득 찬 산 정상에 함께 오른다. 가슴이 땡 뚫리는 듯한 탁 트인 풍경과 맘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산이 주는 같은 선물. 하지만 누군가는 치유를 얻고, 또 누군가는 활력을 얻은 채 산에서 내려간다.

A boy visits a mountain, skipping his class after arguing with his mother in the morning. An 'older sister' comes to the mountain where she had been before with her younger sister whom she can meet only in her dream now. Misunderstanding that the 'older sister' stole his drink, the boy snatches her drink roughly from her hand. Now, they are engaged in a short chase since the boy finding out his mistake follows the 'older sister' who tries to climb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like running away from him. His misunderstandings and her feelings of wariness disappear by a sudden balmy breeze, and the two climb up together to the top of the mountain covered with green colors. We see an expansive view along with the cooling wind. This is what god gives to those who climb up to the top. Some get healed, and others receive vitality; finally, they descend a mountain.

**Dir. 이인성 LEE In-seong**

타인이 정한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I,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tory about people trapped in the frame that others define.



8.29 Sat 17:00 **GV**  
8.31 Mon 14:00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산의 남자 The Meaning of Mountain

Korea | 2015 | 30min | DCP | Color | Fiction | ©  
World Premiere



각박한 도시의 삶을 사는 우철은 심마니로 살아온 병든 아버지가 오랫동안 캐지 않고 묵혀온 산삼을 캐기 위해 산에 오른다. 죽기 전에 귀한 산삼을 꼭 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우철은 산삼을 팔아 밀린 결제 대금으로 쓸 요량이다. 힘들게 오른 산이건만 산삼은 보이지 않고 우철은 부상만 당한 채 산에서 내려온다.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들고 다시 산에 오른 우철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산을 오르고 또 산을 느끼게 된다.

Woo-chul living in a hostile urban area decides to climb up to a mountain so as to dig out the wild ginseng that his ill father, a ginseng digger, has not dug for a long time. While his father wants to see the precious wild ginseng before he dies, Woo-chul intends to sell it for the sake of paying back to his delayed debts. He cannot find the ginseng, and descends the mountain only with an injury. Holding the box of his father's ashes, now, Woo-chul climbs up the mountain again.



### Dir. 이성재 LEE Seong-jae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으며, 팔레트 픽처스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경력을 쌓았다. 2014년 <여행의 묘미>를 연출하였으며, 최근 독립장편영화 <우리집>을 제작했다.

He graduated from Kyunghee University in Film & Theater and started his film career as a screenwriter in Palette Pictures. Recently he produced independent feature film *The House*.

8.29 Sat 17:00 **GV**  
알프스시네마  
Alps Cinema

## 밤빛 Night Light

Korea | 2015 | 35min | DCP | Color | Fiction | ©  
World Premiere



약초꾼인 회태는 10년 동안 헤어졌던 아들 민상과 2박3일 동안 회태의 산 속 집에서 같이 보낸다. 회태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민상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만 민상을 실망시킨다. 하지만 민상은 서서히 산골 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회태와 유대감을 느낀다.

Hui-Tea who is Herb collector stays with Min-Sang who is Hui-Tea's son in Hui-Tea's place where is located in deep inside of the mountain during 3 days. Hui-Tea tries to be nice to Min-Sang but Min-Sang rejects the existence of Hui-Tea. Actually Min-Sang hates Hui-Tea because Hui-Tea abandoned Min-Sang 10 years ago. However, Min-Sang gradually finds the interest in the mountain during 3 days with Hui-Tea, and Min-Sang feels the bond between him and Hui-Tea.



### Dir. 김무영 KIM Moo-young

서울 출생. 미국 캘리포니아 칼라츠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으며 LA와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오퀴하이오, 서울 등에서 상영된 바 있다.

Born in Seoul. He earned his bachelor and master degree in Film and Video at Calarts in Los Angeles. His works screened in Los Angeles, New York, Ohio, Seoul etc.

## 부대 행사 Festival Event

산악문화 대중화를 위한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체험과 산악관련 도서전, 그리고 영남알프스를 활용한 트레킹, 별사진 촬영, 클라이밍, 스토리 사진전 등 다양한 체험·전시·공연행사와 푸드존 운영으로 사람과 산이 함께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만의 부대 행사이다.

The concurrent events of 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 consist of the various experience programs utilizing Yeongnam Alps. UMFF's own specialized programs such as Experience in the Himalayan Base Camp, The Healing Trekking, Mountain Book Exhibition and more public programs such as Family Climbing Experience, variou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the food zone will be presented.

UMFF 체험 ①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 힐링 트레킹

UMFF 체험 ②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 'UMFF 공작소'

UMFF 체험 ③ 영남알프스 '별사진 촬영'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UMFF 전시 'UMFF 책마루' & 영남알프스 '스토리 사진전'

UMFF 공연 'UMFF 끝자락' & 'UMFF 힐링 스테이지'

UMFF 캠핑 & 푸드 백패킹 야영존, 카페테리아 'UMFF 산장' & '푸드 트럭'

## 행사 일정표 Event Schedule

|                     |            | 11:00                            | 13:00            | 14:00                | 16:00 | 18:00 | 19:00                      | 20:00 | 22:00 |
|---------------------|------------|----------------------------------|------------------|----------------------|-------|-------|----------------------------|-------|-------|
| <b>8.28<br/>Fri</b> | UMFF시네마    |                                  |                  |                      |       |       | 그린카펫+개막식+ 개막작상영            |       |       |
|                     | 산악문화센터     | 카페테리아 'UMFF 산장' 상시운영             |                  |                      |       |       |                            |       |       |
|                     | 국제클라이밍센터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11:00~19:00 |                  |                      |       |       |                            |       |       |
|                     | 거북바위       |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11:00~18:00       |                  |                      |       |       |                            |       |       |
|                     | 복합웰컴센터~간월재 | 하늘역새길 '힐링트레킹' 13:00~22:00        |                  |                      |       |       |                            |       |       |
|                     | 신불산 간월재    |                                  |                  |                      |       |       | 영남알프스 '별사진 촬영' 19:30~03:30 |       |       |
| <b>8.29<br/>Sat</b> | UMFF시네마    |                                  |                  | BMX 시범공연             |       |       | UMFF '끝자락' 19:00~20:00     |       | 야외 상영 |
|                     | 산악문화센터     |                                  | UMFF 힐링 스테이지 1,2 | 카페테리아 'UMFF 산장' 상시운영 |       |       |                            |       |       |
|                     | 국제클라이밍센터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                  |                      |       |       |                            |       |       |
|                     | 거북바위       |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11:00~18:00       |                  |                      |       |       |                            |       |       |
|                     | 복합웰컴센터~간월재 | 하늘역새길 '힐링트레킹' 13:00~22:00        |                  |                      |       |       |                            |       |       |
|                     | 신불산 간월재    |                                  |                  |                      |       |       | 영남알프스 '별사진 촬영' 19:30~03:30 |       |       |
| <b>8.30<br/>Sun</b> | UMFF시네마    |                                  |                  | BMX 시범공연             |       |       | UMFF '끝자락' 19:00~20:00     |       | 야외 상영 |
|                     | 산악문화센터     |                                  | UMFF 힐링 스테이지 1,2 | 카페테리아 'UMFF 산장' 상시운영 |       |       |                            |       |       |
|                     | 국제클라이밍센터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11:00~19:00 |                  |                      |       |       |                            |       |       |
|                     | 거북바위       |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11:00~18:00       |                  |                      |       |       |                            |       |       |
|                     | 복합웰컴센터~간월재 | 하늘역새길 '힐링트레킹' 13:00~22:00        |                  |                      |       |       |                            |       |       |
|                     | 신불산 간월재    |                                  |                  |                      |       |       |                            |       |       |

## 행사 일정표 Event Schedule

|                     |            | 11:00                            | 13:00 | 14:00 | 16:00 | 18:00 | 19:00                  | 20:00 | 22:00 |
|---------------------|------------|----------------------------------|-------|-------|-------|-------|------------------------|-------|-------|
| <b>8.31<br/>Mon</b> | UMFF시네마    |                                  |       |       |       |       | 'UMFF 끝자락' 19:00~20:00 |       | 야외 상영 |
|                     | 산악문화센터     | 카페테리아 'UMFF 산장' 상시운영             |       |       |       |       |                        |       |       |
|                     | 국제클라이밍센터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       |       |       |       |                        |       |       |
|                     | 거북바위       |                                  |       |       |       |       |                        |       |       |
|                     | 복합웰컴센터~간월재 | 하늘역새길 '힐링트레킹' 13:00~22:00        |       |       |       |       |                        |       |       |
|                     | 신불산 간월재    |                                  |       |       |       |       |                        |       |       |
| <b>9.1<br/>Tue</b>  | UMFF시네마    |                                  |       |       |       |       | 'UMFF 끝자락' 19:00~20:00 |       | 야외 상영 |
|                     | 산악문화센터     | 카페테리아 'UMFF 산장' 상시운영             |       |       |       |       |                        |       |       |
|                     | 국제클라이밍센터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11:00~19:00 |       |       |       |       |                        |       |       |
|                     | 거북바위       |                                  |       |       |       |       |                        |       |       |
|                     | 복합웰컴센터~간월재 | 하늘역새길 '힐링트레킹' 13:00~22:00        |       |       |       |       |                        |       |       |
|                     | 신불산 간월재    |                                  |       |       |       |       |                        |       |       |

|     | 8.28 | 8.29                       | 8.30 | 8.31 | 9.1 |
|-----|------|----------------------------|------|------|-----|
| 체험존 |      | UMFF 공작소 11:00~19:00       |      |      |     |
|     |      |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11:00~19:00     |      |      |     |
| 전시존 |      | 도서전 'UMFF 책마루' 11:00~19:00 |      |      |     |
|     |      | 영남알프스 스토리 사진전 11:00~19:00  |      |      |     |
| 야영존 |      | 백패킹 야영존 상시운영               |      |      |     |
| 푸드존 |      | 푸드트럭 & 푸드코트 상시운영           |      |      |     |



## UMFF 체험 ① UMFF Experience ①



### 히말라야 베이스캠프 체험 Himalayan Base Camp Experience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전문산악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베이스캠프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다양한 등산장비 소개와 사용법 교육, नेपाल 현지 음식을 시식체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    |   |
|----|---|
| 일시 | 8. 28. Fri ~ 9. 1. Tue 11:00 ~ 19:00        |
| 장소 | 북한웰컴센터 內 체험존                                |
| 대상 | 일반관람객                                       |
| 신청 | 행사장 선착순 접수 (참가비 무료)                         |
| 규모 | 메인돔텐트1, 식당텐트1, 수면텐트2, 화장실텐트1, 샤워텐트1, 라마제단 등 |
| 진행 | (사)한국산악회 울산광역시지부                            |



### '하늘역새길' 힐링 트레킹 Healing Trekking 'Haneul Eoksae-gil'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간 동안 수 백 만평에 달하는 신불평원 하늘역새길을 직접 보면서, 전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에 따라 걸어보는 트레킹 체험

|    |  |
|----|--|
| 일시 | 8. 28. Fri ~ 9. 1. Tue 13:00 ~ 22:00 (1일 1회) |
| 코스 | 행사장→홍류폭포→간월재→홍류폭포→행사장                        |
| 대상 | 일반관람객 (중학생 이상)                               |
|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참가비 무료), 당일 현장 접수 불가            |

5인 이상 단체 시 전화접수(052-248-6451)

|    |                   |
|----|-------------------|
| 인원 | 1일 40명            |
| 시간 | 트레킹 5시간, 영화관람 2시간 |
| 진행 | (사)영남알프스 천화       |

#### 스토리텔러

#### 배성동 (작가)

(사)영남알프스 천화 이사장,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영남알프스 오디세이', 울산염부들의 구술사'울산소금 이야기' 출판  
박을규 (산악인)  
울산산악연맹이사, 울산산악회 회장 역임

## UMFF 체험 ② UMFF Experience ②

###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TheTree Climbing 'Namunori'

숲 속에서 로프를 이용한 나무등반으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삶의 휴식을 제공하는 이색 레포츠 체험

|    |                                       |
|----|---------------------------------------|
| 일시 | 8. 28. Fri ~ 8. 30. Sun 11:00 ~ 18:00 |
| 장소 | 간월재 등산로입구 內 거북바위                      |
| 대상 | 청소년 단체 및 가족단위 관람객                     |
|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사전접수 및 당일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
| 구성 | 트리 클라이밍, 짚라인                          |
| 진행 | 웰빙영농조합법인                              |

### 공작체험 'UMFF 공작소' UMFF Fun Factory

|    |                            |
|----|----------------------------|
| 일시 | 8. 29 Sat ~ 9. 1 Tue       |
| 장소 | 북함웰컴센터 內 체험존 / 신청 당일 현장 접수 |

#### UMFF 포스터 그리기

2016 UMFF 포스터 그리기 & 2015 UMFF 포스터로 점 잇기, 색칠하기

|    |                |
|----|----------------|
| 시간 | 14:00 ~ 19:00  |
| 대상 | 일반관람객 (참가비 무료) |

#### UMFF 손수건 만들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념 손수건 만들기

|    |                |
|----|----------------|
| 시간 | 14:00 ~ 19:00  |
| 대상 | 일반관람객 (참가비 무료) |

#### 로프팔찌 만들기

산악인들이 사용하는 매듭팔찌 만들기

|    |  |
|----|--|
| 시간 |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총 6타임) |
| 대상 | 일반관람객 10인 1조 1타임 (참가비 무료)                        |

#### 아이싱 쿠키 만들기

여러 가지 쿠키로 재미있는 모양 만들기

|    |   |
|----|---|
| 일시 | 13:00, 14:30, 16:00, 17:00, 18:00 (총 5타임) |
| 대상 | 일반관람객 15인 1조 1타임 (참가비 무료)                 |

#### 영남알프스 UMFF스튜디오

영남 알프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 및 인화

|    |                |
|----|----------------|
| 대상 | 일반관람객 (이용료 무료) |
|----|----------------|

## UMFF 체험 ③ UMFF Experience ③

### 영남알프스 '별 사진' 촬영체험

### Yeongnam Alps Photo-Workshop 'Shooting the stars'

영남알프스의 또 다른 매력포인트로 별사진 촬영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야간 등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이색체험 프로그램

|     |   |
|-----|---|
| 일시  | 8. 28. Fri ~ 8. 29. Sat PM 19:30 ~ AM 3:30  |
| 코스  | 북함웰컴센터 → 간월재 일원 → 북함웰컴센터  |
| 대상  | 일반(성인/DSLR카메라 소유), 1일 20명.  |
|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사전접수 (참가비 무료).   |
| 준비물 | DSLR카메라, 삼각대, 릴리즈, 헤드랜턴, 보온자켓, 간식 및 음료 등<br>※ 촬영 장비는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우천 시 체험이 취소<br>될 수 있습니다. |
| 시간  | 총 8시간 (교육 30분, 영화관람 2시간, 등반 및 촬영 5시 30분)  |
| 강사  | 김형진 (사진작가)<br>2014울주문화예술회관 테마 기획전 영남 알프스 '하늘 역새길' 사진전                                       |

### 스포츠 클라이밍 '도전! 스파이더맨' 체험

### The Sports Climbing 'Challenge the Spiderman!'

산악영화제로서 산악 스포츠 체험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

|    |   |
|----|---|
| 일시 | 8. 29. Sat ~ 9. 1. Tue 11:00 ~ 19:00                      |
| 장소 | 국제클라이밍센터 內 인공 암벽장   |
| 대상 | 10인 1조 (1일 200명)<br>난이도 코스는 13세 이상, 연습용 코스는 모든 연령 가능      |
| 신청 | 당일 현장 접수 ※ 단체 사전전화 접수가능                                   |
| 시간 | 조별 30분  |
| 진행 | (사)한국산악회 울산광역시지부<br>※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은 안전책임 각서 작성 후 참여 가능합니다. |

## UMFF 전시 UMFF Exhibition

### 도서전 'UMFF 책마루' UMFF Book Fair

산과 사람, 자연과 환경 등 산악문화와 관련된 도서를 전시 및 판매하고 현장에서 자유로운 독서를 할 수 있는 쉼터.

**기간** 8. 28. Fri ~ 9. 1. Tue 11:00 ~ 19:00

**장소** 북한웰컴센터 1층 전시존  
※ 단, 8월 28일은 개막식 관계로 운영시간이 변경됩니다

**책+올림** 산과 사람, 자연과 환경에 대한 도서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책+누림** 산과 사람, 자연과 환경에 대한 도서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책+끌림** 산과 사람, 자연과 환경, 여행과 힐링을 다룬 정기간행물

**도전의 시간** 국내외 전문산악인들의 자서전

**네팔의 희망** 네팔 관련 도서

### 영남알프스 스토리 사진전

#### Photography Exhibition 'Yeongnam Alps Story'

산에 기대어 울고 웃으며 살아온 이곳 민초들의 삶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거쳐 간 영남알프스 곳곳의 옛길을 사진작품과 이야기로 엮어낸 영남알프스 스토리 사진전시

**일시** 8. 28. Fri ~ 9. 1. Tue (5일간) 11:00 ~ 19:00

**장소** 북한웰컴센터 1층 전시존

**진행** (사)영남알프스 천화

**작가** 배성동 (작가)

(사)영남알프스 천화 이사장,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영남알프스 오디세이', 울산염부들의 구술사'울산소금 이야기' 출판

**김혜진 (사진작가)**

(사)영남알프스 천화 미디어팀장

2013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 공모전 최우수 수상

## UMFF 공연 UMFF Concert

### BMX(모기자전거) 시범공연 BMX Bike Show

'BMX(모기자전거) 시범' 공연은 영화제 부대 행사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시범공연

**일시** 8. 29. Sat ~ 8. 30. Sun 14:00 ~ 14:20, 17:00 ~ 17:20

[1일 2회 총4회 공연]

**장르** 프리스타일 BMX

**출연** Master Of Flow (김현웅 선수 외 3명, 스텝1명)

익스트림 스포츠 BMX(모기자전거) 전문공연팀

## UMFF 끝자락 Ultimate UMFF Fun

UMFF시네마 (야외상영무대)에서 야간 영화상영 전 해질 무렵 관객들에게 선물하는 잔잔한 대중음악 공연

**일시** 8. 29. Sat ~ 9. 1. Tue 19:00 ~ 20:00

**장소** UMFF시네마 (야외상영무대)

**출연** 8. 29. Sat 배다해, 갈릭스, 삼호하에라합창단

8. 30. Sun 유리상자, 딜라이트 피플, 뽀뽀한 중창단

8. 31. Mon 유즈밴드

9. 01. Tue 동물원



### UMFF 힐링 스테이지 UMFF Healing Stage

늦은 여름 한낮의 관객들에게 음악으로 심을 주는 인디 뮤지션들의 작은 어쿠스틱 공연

**일시** 8. 29. Sat ~ 8. 30. Sun 13:00 ~ 14:00, 16:00 ~ 17:00

**장소** 산악문화센터

**출연** 8. 29. Sat 13:00 ~ 14:00 갈릭스

16:00 ~ 17:00 웰 페이퍼스

8. 30. Sun 13:00 ~ 14:00 딜라이트 피플

16:00 ~ 17:00 어쿠스틱 연구소



## UMFF 캠핑 & 푸드 UMFF Camping & Food

### 백패킹 야영존 Backpacking Campsite

가벼운 야영장비로 1박 이상의 야영을 즐기며 자유롭게 여행하는 백패킹 매니아와 산악인들을 위한 '백패킹 야영존'

|      |                                     |
|------|-------------------------------------|
| 일시   | 8. 28. Fri ~ 9. 1. Tue (5일간)        |
| 장소   | 북한웰컴센터 內 야영존, 텐트 50면 (500평) 규모      |
| 신청   | 홈페이지 선착순 사전접수 및 당일 현장접수             |
| 부대시설 | 야외 화장실 1동, 산악문화센터 화장실 (10:00~23:00) |

### 영남알프스 야생차 만들기 체험 Making Yeongnam Alps Wild Teas

야생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수제 야생차 만들기, 영남알프스 가지산의 끝자락 고현산 중턱에서 자란 울주군의 산촌 특산물인 야생차를 관람객들이 직접 꺾어보고 포장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    |                                      |
|----|--------------------------------------|
| 일시 | 8. 28. Fri ~ 9. 1. Tue 11:00 ~ 20:00 |
| 장소 | 북한웰컴센터 內 체험존                         |
| 신청 | 현장접수, 1인 10,000원 (포장비 포함)            |
| 진행 | 소호산촌협동조합                             |

### 카페테리아 UMFF산장 The Cafeteria

산속에서 산악인들이 쉬터이었던 산장을 실내에 설치해 산악인들이 산장에서 쉬어가듯 관람객들도 쉬고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 'UMFF산장'

|    |                        |
|----|------------------------|
| 일시 | 8. 28. Fri ~ 9. 1. Tue |
| 장소 | 산악문화센터 內 카페테리아         |
| 대상 | 일반관람객                  |
| 메뉴 | 음료 및 주류, 사이드 디쉬 등      |

### 푸드 트럭 Food Trucks

세계에서 각광 받는 편리한 푸드 트럭을 전국의 이색적인 먹거리로 운영될 푸드존 '푸드 트럭'

|    |                        |
|----|------------------------|
| 일정 | 8. 28. Fri ~ 9. 1. Tue |
| 장소 | 북한웰컴센터 內 푸드존           |
| 메뉴 | 음료, 거리음식, 주류 푸드 트럭     |

## 자원활동가 옴트리 Volunteer

| 사업팀<br>Operation Dept. | 프로그램팀<br>Program Dept. | 홍보팀<br>Publicity Dept. |
|------------------------|------------------------|------------------------|
| 김가영 KIM Ga-yeong       | 강하라 KANG Ha-ra         | 김다현 KIM Da-hyeon       |
| 김귀선 KIM Gwi-seon       | 고혁빈 KO Hyuk-been       | 김영채 KIM Young-chaе     |
| 김기혁 KIM Ki-ghr         | 권유경 KOWN You-kyoung    | 김태형 KIM Tae-hyeong     |
| 김민지 KIM Min-ji         | 김경진 KIM Kyoung-jin     | 김현미 KIM Hyun-mi        |
| 김상우 KIM Sang-woo       | 김민정 KIM Min-jeong      | 김희원 KIM Hee-won        |
| 김성훈 KIM Sung-hoon      | 김산 KIM San             | 노상훈 NOH Sang-hoon      |
| 김세영 KIM Se-yeong       | 김수빈 KIM Su-bin         | 박혜경 PARK Hye-kyung     |
| 김수경 KIM Su-kyung       | 김정민 KIM Jeong-min      | 이다슬 LEE Da-seul        |
| 김수민 KIM Soo-min        | 문준수 MOON Jun-soo       | 이령희 LEE Ryung-hee      |
| 김수빈 KIM Soo-bin        | 박상한 PARK Sang-han      | 이민정 LEE Min-jung       |
| 김영재 KIM Yeong-jae      | 박예슬 PARK Ye-seul       | 이상은 LEE Sang-eun       |
| 김예정 KIM Yei-jung       | 박은정 PARK Eun-jung      | 정소영 JEONG So-yeong     |
| 김요한 KIM Yo-han         | 박진우 PARK Jin-woo       | 정혜미 JUNG Hae-mi        |
| 김하영 KIM Ha-young       | 반지영 BAN Ji-young       | 조현석 JO Hyun-seok       |
| 김현정 KIM Hyeon-jeong    | 손가인 SON Ga-in          | 허주연 HEO Ju-yeon        |
| 김혜연 KIM Hye-yeon       | 원광표 WON Kwang-pyo      |                        |
| 노화성 NOH Haw-sung       | 이채룡 LEE Chea-lyong     |                        |
| 문동식 MUN Dong-sik       | 이효진 LEE Hyo-jin        |                        |
| 박예진 PARK Ye-jin        | 임재경 IM Jae-kyeong      |                        |
| 박청진 PARK Chung-jin     | 임효정 IM Hyo-jeong       |                        |
| 백경은 BAEK Kyung-eun     | 전윤 JUN Yun             |                        |
| 서희웅 SEO Hee-woong      | 정민주 JEONG Min-joo      |                        |
| 신하은 SHIN Ha-eun        | 정지현 JEONG Ji-hyeon     |                        |
| 신호주 SHIN Hyo-joo       | 조영신 CHO Young-sin      |                        |
| 심희은 SHIM Hee-eun       | 조영은 CHO Yeong-eun      |                        |
| 안유나 AHN Yuna           | 차영운 CHA Young-woon     |                        |
| 유송 YOU Song            | 최윤정 CHOI Yun-jeong     |                        |
| 이권형 LEE Kwon-hyung     | 태지영 TAE Gee-young      |                        |
| 이동훈 LEE Dong-hoon      | 하유진 HA Yu-jin          |                        |
| 이은지 YI Eun-ji          | 홍영원 HONG Young-won     |                        |
| 이주은 LEE Joo-eun        | 황정은 HWANG Jung-eun     |                        |
| 임대환 LIM Dae-hwan       |                        |                        |
| 장종현 JANG Jong-hyun     |                        |                        |
| 정지은 JEONG Ji-eun       |                        |                        |
| 조하은 CHO Ha-eum         |                        |                        |
| 최웅 CHOI Woong          |                        |                        |
| 추형진 CHOO Hyeong-jin    |                        |                        |
| 피경화 PI Kyeong-hwa      |                        |                        |
| 한종훈 HAN Jong-hun       |                        |                        |
| 황석주 HWANG Seok-ju      |                        |                        |
| 황은우 HWANG Eun-woo      |                        |                        |

## 도움주신분들 Acknowledgements

|                                 |   |                            |
|---------------------------------|---|----------------------------|
| 복순도가 손막걸리<br>김정식, 박복순           | 작천정펜션<br>장연선  | 아랍영화제<br>김영미               |
| 지니앤즈<br>박지은                     | 에로스모텔<br>이태호  | 산악문학작가<br>심산               |
| 로프팔찌<br>권미숙, 권오경                | 솔베이지모텔<br>손남숙   | 엔돌프뮤직<br>양방언, 이성희          |
| (주)에스케이관광여행사<br>강봉주             | 등억온천변영화회<br>최점석   | 백두대간<br>조혜경, 조현주           |
| 디자이너<br>류동환                     | 순천대학교<br>변재란  | 코트리<br>심선화, 류동일            |
| MBC 컨벤션센터<br>김철중                | KIMFF<br>Eshani Rajbhandari   | 인디스토리<br>김다정               |
| 더팩<br>정민화, 나일선, 이지혜             | studio fnt<br>이재민, 이혜현  | 씨앗<br>고유정                  |
| 미디어트<br>김아름                     | 미루픽처스<br>김영   | 시네마달<br>김하늘                |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br>임직원               | Trento Film Festival<br>Roberto De Martin,<br>Sergio Fant, Rosanna<br>Stedile | 엔케이컨텐츠<br>임소정              |
| 울주군시설관리공단<br>임직원                | 무주산골영화제<br>조지훈, 신동환   | 조이앤<br>이정민                 |
| 울주문화예술회관<br>임직원                 | DMZ국제다큐영화제<br>서용우, 박미경, 안지혜   | 서울국제여성영화제<br>김복현, 최진아, 여인영 |
| 청소년수련관<br>임직원                   | EBS국제다큐영화제<br>맹수진, 신은실  | 울산시립무용단<br>예술감독<br>김상덕     |
| 지디 투어<br>정연지                    | 추계예술대학교<br>김은영  |                            |
| 메이커카드<br>임현태                    | 드림팩트<br>김학중   |                            |
| SM리조트<br>신창호, 김상신               | 한국영상자료원<br>모은영  |                            |
| 롯데호텔울산<br>제정민, 이정주, 배병인,<br>김리원 |   |                            |

## 작품 색인 Index of Films

|                      |    |                                |    |
|----------------------|----|--------------------------------|----|
| 14.C                 | 35 | 14.C                           | 35 |
| 6월의 산                | 44 | 500 Miles to Nowhere           | 34 |
| 88청춘                 | 35 | All My Own Stunts              | 36 |
| Booroo               | 44 | Arctic Swell -                 |    |
| Natural Urban Nature | 44 | Surfing the Ends of the Earth  | 37 |
| 걷는 나무                | 48 | Art Coefficient 07             | 52 |
| 그랑블루                 | 41 | Begin Again                    | 57 |
| 나만의 스텐트              | 36 | Booroo                         | 44 |
| 내친구 고라니              | 45 | By the End of October          | 52 |
| 대니 맥어스킬의 리지          | 36 | Chasing Ice                    | 29 |
| 뚜르드 프랑스: 기적의 레이스     | 42 | Danny MacAskill: The Ridge     | 36 |
| 루키                   | 32 | Déjame Vivir                   | 26 |
| 마지막 양치기              | 49 | Hal Mang                       | 46 |
| 밀양 아리랑               | 50 | Into the Empty Quarter         | 39 |
| 반란의 계곡               | 28 | Legend of Miryang 2            | 50 |
| 밤빛                   | 58 | Little Red Bus                 | 32 |
| 북극 서핑                | 37 | Mountain of June               | 44 |
| 빙하를 따라서              | 29 | My Friend Go-Ra-Ni             | 45 |
| 빨강 버스                | 32 | Natural Urban Nature           | 44 |
| 산의 남자                | 58 | Night Light                    | 58 |
| 서퍼페스트2               | 37 | Noodle Fish                    | 45 |
| 수나칼리                 | 54 | Novato                         | 32 |
| 스톤 프리                | 33 | O-Nu-Ri                        | 45 |
| 시월의 끝                | 52 | Pawan                          | 55 |
| 썬독                   | 38 | Punte's Wheel                  | 55 |
| 예술 계수 7번             | 52 | Sculpted in Time: The Wise Man | 35 |
| 오늘이                  | 45 | Sound of Silence               | 33 |
| 오목어                  | 45 | Stone Free                     | 33 |
| 오월                   | 57 | Sufferfest 2: Desert Alpine    | 37 |
| 와일드 우먼               | 38 | Sun Dog                        | 38 |
| 우드잡                  | 43 | Sunakali                       | 54 |
| 인생                   | 46 | The Big Blue                   | 41 |
| 정적                   | 33 | The Cave Connection -          |    |
|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         | 51 | Into the Unknown               | 30 |
| 좌충우돌 사막횡단            | 39 | The Frozen Titans              | 31 |
| 케이브 커넥션              | 30 | The Last Shepherd              | 49 |
| 터치                   | 39 | The Life                       | 46 |
| 패러글라이딩 어드벤처          | 34 | The Meaning of Mountain        | 58 |
| 포완                   | 55 | The Salt of the Earth          | 51 |
| 폰테의 바퀴               | 55 | Touch                          | 39 |
| 프로즌 타이탄              | 31 | Tour De Force                  | 42 |
|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          | 26 | Trees That Walk                | 48 |
| 할망                   | 46 | Valley Uprising                | 28 |
|                      |    | Wild Women - Faith Dickey      | 38 |
|                      |    | Wood Job                       | 43 |

편집 Editors

최선희 Billy CHOI  
지정미 Ji Jung-mi

번역 Translation

조은정 CHO E J  
임지윤 Jiyeon LIM  
김수현 Sue KIM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김형석 KIM Hyoung Seok  
최선희 Billy CHOI

자료 Contents

최선희 Billy CHOI  
손은미 Amy SON  
지정미 Ji Jung-mi  
유정화 RYOO Jeong-hwa

디자인 Design

Studio fnt

제작 Print

새운인쇄 Seun Printing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  
Ulju Mountain Film Festival

689-855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 울주문화예술회관 3층  
Ulju Arts Center 3F, 36, Cheonsang-  
jungang-gil, Beomseo-eup,  
Ulju-gun, Ulsan, Korea 689-855  
Tel. +82-52-248-6450  
Fax. +82-52-248-6455  
www.umff.kr

본 책자는 8월 10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Festival Guide was published  
on August 10th. Please check out  
the latest information at UMFF  
website (www.umff.kr).



SINCE 1969

‘산, 사람, 삶’

산은 일상입니다.

산은 삶입니다.

산은 인생입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에서 일상 속 따뜻한 방울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산에 자라는 노송에서 삶의 곳곳한 의미를 배웁니다.

산의 바위에서 인생의 우직함을 배우고, 산의 꽃들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을 기다리십니까?

산이 그림이라면, 산의 넓은 품에 안기고 싶다면

〈월간산〉이 여러분의 산을 현실로 이루어 드립니다.

시즌에 맞는 정확한 산행정보와 등산상식, 캠핑과 MTB, 오토, 카약 등을 아우르는 알찬 아웃도어 정보는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월간산〉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월간산〉은 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구독문의 02-724-6764 san.chosun.com

월간 MOUNTAIN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산'을 만나세요!

# auto camping magazine



www.autocamping.co.kr

캠핑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즐기는  
사람들의 잡지

since 2005

2005년 2번의 창간 준비호 발간 / 2006년 5월 10일 격월간으로 창간  
캠핑장비에 대한 다양한 리뷰와 실험, 사용법 소개  
캠핑트렌드에 대한 리뷰 / 캠핑 컬처 제안 /  
다양한 캠퍼들의 캠핑 이야기 수록 / 캠핑 레저 소개

전국 40여 캠핑장비 전문점에서 구매 가능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

1구좌(6회) 정기구독 5만 원, 2구좌(12회) 10만 원  
정기구독 문의 02-522-9320

webmaster@autocamping.co.kr

온라인 정기구독 [www.ocamall.com](http://www.ocamall.com)/[www.themagazine.co.kr](http://www.themagazine.co.kr)



가장 생생한 등산정보  
[www.emountain.co.kr](http://www.emountain.co.kr)  
[facebook.com/enjoymountain](https://facebook.com/enjoymountain)

정기구독문의 02-792-7010  
[emountain@emountain.co.kr](mailto:emountain@emountain.co.kr)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88길 11-4(금강빌딩) 5층

유스캠핑은 연인,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캠핑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Youth camping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828-3 TEL 031-422-4182, 010-8421-4182

LOTTE HOTEL ULSAN



A Luxury Business Hotel  
Creating a New Culture in Ulsan

**LOTTE**  
HOTELS & RESORTS



# All100 플랜

내 삶의 힘,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

## NH농협은행 은퇴설계 브랜드 론칭기념 이벤트

대상  
고객

개인고객으로 이벤트기간 중 대상상품 가입고객

기간

2015.7.15(수) ~ 2015.10.16(금)

대상  
상품

NH All100플랜 통장 + 미래준비계좌\*  
중 1개 이상 신규

### \* 미래준비계좌

- |                         |                     |
|-------------------------|---------------------|
| 1. NH All100플랜 연금예금     | 4. NH All100플랜 연금대출 |
| 2. NH All100플랜 적금       | 5. NH올원 All100 카드   |
| 3. NH All100플랜 연금저축펀드계좌 |                     |

경품

매월 100명 추첨 · 경품제공  
(매월 16일 기준, 총 3회)



1등(1명)  
기프트카드 100만원



2등(9명)  
홍삼정프레쉬



3등(90명)  
순수홍삼본